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CHURCH GROWTH AND MINISTERIAL STRATEGIES IN THE KOREAN AMERICAN DUAL CULTURE: AGAPE KOREAN CHURCH, COLORADO SPRINGS, COLORADO**

written by

**SUNG WOO HO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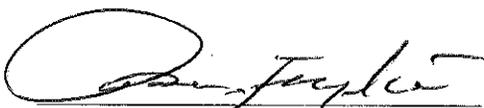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_\_\_\_\_  
Jin Ki Hwang

  
\_\_\_\_\_  
Jeong-Kii Min

July 15, 2013

**CHURCH GROWTH AND MINISTERIAL  
STRATEGIES IN THE KOREAN AMERICAN DUAL  
CULTURE: AGAPE KOREAN CHURCH,  
COLORADO SPRINGS, COLORADO**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UNG WOO HONG**

JULY 2013

이중문화 속에서의 교회성장과 목회전략: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황진기 교수

홍성우

2013년 7월

## Abstracts

Church Growth and Ministerial Strategies in the Korean American Dual Culture:  
Agape Korean Church, Colorado Springs, Colorado

Sung Woo Hong

Doctor of Ministry

2013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ll the Korean immigrants of Agape Korean Church in Colorado Springs, having lived in a foreign land for at least ten to thirty years, not only had emotional wounds that made them fragile, but also had much of their identity as Koreans fade away, thus calling for a different ministry approach than the one accepted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form a strategy for healing, it wa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ir backgrounds from their point of view. I sought to comfort these lost immigrant members, heal their wounds, strengthen their faith, improve their lifestyles through proper worship of God, and foster continuous spiritual growth based on sound biblical and theological methods. This paper, excluding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includes two parts: one part cov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to church growth, and the other discusses the ministry strategies that were implemented to help the church grow in its dual culture.

Chapter 2 discusses the need to base a healthy church on biblical teachings, and it explores the process of healing hurt members and boosting the people's self-esteem and confidence. These measures were essential for nourishing and supporting the faith and spiritual worship of the original members.

Chapter 3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that make Agape Korean Church in Colorado Springs stand out among the other churches in the community and stresses the unique ministerial methods for rapid church growth. Chapter 4 deals with the strategies for revival through new and lively worship, emphasizing the

long-ignored importance of worship. This research focused on how such worship could bring the members to appreciate worship and could give newcomers comfort and opportunity to grow spiritually.

Chapter 5 touches upon the strategies of balanced growth by setting up the atmosphere of a beautiful family church that is rich in love and comfort, assisting the settlement of newcomers. The chapter also observes the growth of healthy faith through enthusiastic ministerial activities, worship, training, and Bible studies. Chapter 6 focuses on the ministry of healing and revival, rebuilding the lost trust due to previous pastors' leaving within a year. In addition, various case studies are analyzed as the practical grounds of the research. Chapter 7 discusses the process of creating a good image of the church within the community, which helps in distributing information, increasing attendance, and maintaining the good fellowship of the members.

Lastly, chapter 8 concludes by summarizing the research and proposing a few methods, which I wholeheartedly hope and pray will aid fellow immigrant ministries in a dual culture, so the Lord's church will perpetually grow and expand.

Theological Mentors:     Jin Ki Hwang, PhD  
                                  Jeong-kii Min, PhD

## 감사의 글

지난 8년여 동안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의 한인교회인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사역을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목회에 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갖게 하신 김세운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황진기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목회현장에 그림자 같이 따라 다니며 함께 동역하며 힘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한 사랑하는 아내와 늘 믿음직스럽게 뒤에서 응원해 주는 든직한 두 아들과 막내 딸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동안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2013년 7월 홍성우

## 목 차

|   |    |
|---|----|
| 제 1 장 서 론 .....                             | 1  |
| 제 1 절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 .....                    | 1  |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 2  |
| 제 3 절 연구의 개요 .....                          | 3  |
| <br>  |    |
| 제 2 장 건강한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들 .....               | 5  |
| 제 1 절 교회성장주의의 한계 .....                      | 5  |
| 제 2 절 건강한 교회를 통한 바람직한 성장 .....              | 6  |
| 1. 교회의 예배 회복을 통한 자연적 성장 .....               | 9  |
| 2. 양과 질이 균형을 이루는 성장 .....                   | 10 |
| 3.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                        | 11 |
| 4.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회복 .....               | 14 |
| 제 3 절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 방향과 원리 .....            | 17 |
| 1.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질적,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목회 .....   | 17 |
| 2.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는 목회 ..... | 19 |
| 3.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 .....                     | 20 |
| 4. 성도들을 말씀으로 철저히 구비 시키는 목회 .....            | 22 |
| 5. 교회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목회 .....                   | 24 |
| <br>  |    |
| 제 3 장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특성과 목회적 필요들 .....    | 26 |
| 제 1 절 지역 환경적 특징 .....                       | 26 |
| 제 2 절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역사와 현황 .....         | 29 |
| <br>  |    |
| 제 4 장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한 전략 .....                | 33 |
| 제 1 절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 .....                    | 33 |
| 1. 예배의 특성 .....                             | 35 |

|                                    |    |
|------------------------------------|----|
| 가. 예배의 만남 회복 .....                 | 35 |
| 나. 예배의 공동체적인 만남 회복 .....           | 36 |
| 다. 찬양의 회복 .....                    | 37 |
| 2.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개신의 원리들 .....        | 38 |
| 3. 예배의 중요성 .....                   | 40 |
| 제 2 절 역동적인 예배를 위한 전략들 .....        | 42 |
| 1. 역동적인 예배 준비 .....                | 42 |
| 2. 예배전략 .....                      | 45 |
| 가. 예배에 대해 교육하기 .....               | 47 |
| 나.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만들기 .....           | 48 |
| 다. 예배 주체를 명시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기 .....     | 48 |
| 제 5 장 양과 질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전략 .....    | 50 |
| 제 1 절 양적 성장을 위한 목회 활동 .....        | 50 |
| 1. 양적 성장을 위한 목회 전략 .....           | 50 |
| 가. 목회자 자신의 신앙과 지도력 함양을 위한 노력 ..... | 51 |
| 나. 평신도 훈련과 활용 .....                | 52 |
| 다. 복음 전도의 강화 .....                 | 53 |
| 라. 예배 분위기 개선 .....                 | 53 |
| 마. 주일 성수 교육 .....                  | 54 |
| 2. 분석 평가 .....                     | 56 |
| 제 2 절 질적 성장을 위한 목회 활동 .....        | 57 |
| 1. 질적 성장을 위한 목회 전략 .....           | 57 |
| 가. 목회자의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 .....         | 58 |
| 나. 평신도 성경대학 .....                  | 58 |
| 다. 소그룹의 활성화 .....                  | 59 |
| 라. 기도를 통한 질적 성장의 노력 .....          | 60 |
| 마. 주일학교 교육 .....                   | 60 |

|  |    |
|--|----|
| 바. 부흥 성회 개최 .....                      | 62 |
| 사. 감사 생활의 표현 .....                     | 62 |
| 아. 베풀고 섬기는 삶의 실천을 격려 .....             | 63 |
| 자. 복음 선포를 위한 사역 .....                  | 63 |
| 2. 목회의 핵심으로서의 설교 .....                 | 64 |
| 3. 분석 평가 .....                         | 66 |
| <br>                                   |    |
| 제 6 장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목회 .....        | 67 |
| 제 1 절 전인적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           | 67 |
| 1. 전인적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진 목회자 ..... | 68 |
| 가. 올바른 복음 선포와 복음적용을 강조 .....           | 68 |
| 나. 복음 선포의 대상과 원칙 채택하기 .....            | 71 |
| 2. 모범적 자세를 회복하는 목회자 .....              | 72 |
| 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목회자 .....              | 72 |
| 나. 소명감을 회복하는 목회자 .....                 | 73 |
| 다. 영성을 회복하는 목회자 .....                  | 75 |
| 제 2 절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위한 목회 전략들 .....     | 77 |
| 1. 치유의 공동체를 위한 목회 전략 .....             | 77 |
| 가.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 .....                   | 77 |
| 나. 치유 과정 .....                         | 80 |
| 2. 회복의 공동체를 위한 목회 전략 .....             | 81 |
| 가.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회복 .....       | 81 |
| 나. 만인제사장 직분의 회복 .....                  | 82 |
| 3.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사역들 .....                | 84 |
| <br>                                   |    |
| 제 7 장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회복을 위한 전략 .....      | 85 |
| 제 1 절 교회 이미지 개선 .....                  | 86 |
| 1. 목회자의 이미지 관리 .....                   | 86 |

|                                |     |
|--------------------------------|-----|
| 가. 구령의 열정 .....                | 86  |
| 나. 헌신의 모범 .....                | 87  |
| 다. 청렴한 이미지 .....               | 88  |
| 2. 사역의 목표가 뚜렷한 프로그램 만들기 .....  | 88  |
| 가. 감동을 끼치는 사역의 장 .....         | 89  |
| 나. 새 신자새신자 동화 과정 .....         | 90  |
| 다. 새 신자새신자의 소외감을 해결하라. ....    | 93  |
| 라. 강점을 활용하는 목회 .....           | 95  |
| 3. 부담감이 들지 않는 친절한 이미지 심기 ..... | 96  |
| 4. 교체할 시간과 장소 제공하기 .....       | 97  |
| <br>                           |     |
| 제 8 장 결    론 .....             | 99  |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 99  |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적용 가능성 .....    | 101 |
| <br>                           |     |
| 부    록 .....                   | 103 |
| <br>                           |     |
| 참고문헌 .....                     | 104 |
| <br>                           |     |
| Vita .....                     | 108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

미주 한인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건 간에 이중문화권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와 다른 목회적 전략이 필요하다. 특별히 한인과 미국인이 결혼한 다중문화 가정이 많은 교회는 1세 한인들과 1.5세, 2세 자녀들 중심으로 구성된 대다수의 이민교회가 하는 목회적 노력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Agape Korean Church)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시에 위치해 있으며, 2003년에 설립한 개척한지 10년 된 교회이다. 교인들은 90 퍼센트 이상이 국제 결혼한 다중문화를 가진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출신 교단으로 보면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 초교파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2011년 3월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교단에 소속되었다. 2005년 7월에 필자가 교회에 부임해 보니 전임 목회자가 이미 3명이 거쳐 간 교회였다.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었고, 경계하는 시각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씩 다중문화 속에 살다 보니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한국인의 정체성도 희미해져서 한국교회와 심지어 미국의 일반적인 한인교회에서의 목회와는 전혀 다른 목회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필자는 이와 같은 다중 문화 가족들을 돕기 위해 어떤 목회적 노력이 필요하겠는지 사역 초기부터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다. 필자는 먼저 그들의 환경과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 애썼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목회적 노력을 기울였다. 8년이 지난

지금 이와 같은 목회적 노력이 많은 결실을 이루어 교회가 건강해지고, 수적인 성장까지 이루게 되었다.

이 논문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서의 필자가 활용한 목회적 전략과 열매를 제시함으로써 미주지역에서 다중문화 가정이 많은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이며 효과적인 목회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단순히 이론적 연구에 머물기보다는 실제적인 이중문화 속에서의 교회 성장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를 사례로 하여 이중문화 속에서의 교회 성장의 이론과 실제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특수한 지역에서의 교회 부흥을 위한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성공적인 이중문화 속에서의 교회 성장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실천적 기초를 제공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회 성장과 이중문화 속에서 형성된 교회가 정상적이고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물론 필자가 모든 지역, 모든 상황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이론과 실체는 아닐지라도 특수한 지역에서의 교회 성장 연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국내외의 각종 문헌을 참고로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교회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목회 지도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적 접근과 함께 실제적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이중 문화 속에서의 교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충하고자 한다. 물론 주거 환경과 주민들의 성향, 연령 분포, 앞으로의 한인 이민 계획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요구하며, 철저하게 준비된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는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 방법과 필자가 짧은 기간이지만 담임하고 있는 이민 교회의 성장 사례 그 일부를 기초 자료로 삼아 이론을 보완하는 실제적 연구가 되도록 할 것이다.

### 제 3 절 연구의 개요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 하나는 교회 성장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중문화 속에서의 교회 성장에 관련된 목회 전략에 관한 것이다. 성서적 입장과 일반 이론적 입장에서 접근된 두 부분이 실천 신학적 입장으로 조합되도록 다룰 것이다.

제 2장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성경적 원리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 상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의 필요성을 살펴보면서 실제적으로 특수한 지역 속에서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의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고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자들을 치유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고찰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이중문화 속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특성과 목회적 필요들을 성장의 실제적인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 성장의 실천적 과제들을 연구하여 성경을 근거한 바람직한 '교회 성장관'을 제시하려 한다.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 전략으로서 양적 성장을 위한 목회 활동과 질적 성장을 위한 목회 활동에 대해서 이론적인 정의와 함께 실제적인 목회 활동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 4장에서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생동감 있는 예배 전략을 통해서 그들이 소홀히 했던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서 예배의 정체성을 확립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해서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이 성숙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양과 질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먼저 양적인 목회 활동으로 친밀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출석과 성도의 교제에서는 성경적인 주일 성수를 통한 주일의 성도의 교제 연합 가족적 사랑 등을 강조하면서 성경적이고 지속적인 평신도 훈련과 주일학교 교육을 통한 보다 성숙된 질적인 성장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제 6장에서는 그간의 많은 목회자의 이동을 겪으면서 실추되었던 목회자의 신뢰감의 회복을 위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목회에 관해 살피고자 한다. 목회자의 역할과 설교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서 성공적인 목회와 교회의 정상적이고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요청되는 성도들의 내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실제적인 사역들을 소개하고 공동체를 함양하는 사역들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목회자로서의 모범

적 자세와 영성을 회복한 목회자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바른 선포와 감동적 설교를 통한 부흥과 성장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7장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회복을 위한 전략을 다룰 것이다. 교회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신자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친절한 인상을 주며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교회에 잘 동화되게 하며 성도들 간의 교제할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서 외롭고 각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면 즐겁고 재미있다는, 그래서 교회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형성해서 교회의 출석과 성도의 교제를 통한 목회 전략을 세울 것이다.

마지막 8장은 결론으로서 이제까지 논의하고 연구한 것을 요약하고 몇 가지를 제언함으로써 모든 연구를 맺으려 한다. 본 연구가 바람직한 교회 성장을 통해 미국 내의 특수한 지역인 이중문화 속에 거주하는 한인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 되는 일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제 2 장

### 건강한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들

교회는 시대적인 상황과 현장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환경에 처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전환하고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구조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원칙은 목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전의 목회 패러다임은 이전 시대에 적합한 것이었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목회 패러다임도 변혁되어야 한다.<sup>1)</sup>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로 전환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 제 1 절 교회성장주의의 한계

블프강 짐존(Wolfgang Simson)은 그의 책 *가정교회*에서 교회성장 연구가인 빌 설리번의 책을 인용해서 교회성장을 가로막는 장벽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좋은 교회들은 큰 교회로 성장하고, 정말 좋은 교회들은 초대형 교회로 성장한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다. 이런 장벽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허물어져야 한다”<sup>2)</sup>고 주장한다. 그는 교회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의 하나로 ‘200명 장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100명에서 300명 사이, 평균 200명 수준에서 성장을 멈춰버리며, 그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1)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13.

2)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개척론 (House Church: Saturation Church-Planting)*,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62.

그 중 하나는 구조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한 명의 목회자를 가진 전통적인 교회가 본질적으로 떠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목사 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장은 언젠가 뼈거덕거리다가 멈추게 되고, 교회는 '200명 장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천정을 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성도들의 이동이 심한 이민교회에서는 이 '200명 장벽'이 교회성장의 커다란 한계의 벽을 실감케 한다. 이민신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2011-2012 북미주 전국 한인 교회 실태조사<sup>3)</sup>에 의하면 현재 이민교회의 평균 주일 예배 출석 인원수가 21-25명의 소형교회가 22.3퍼센트, 20명 미만인 교회는 12퍼센트, 40-80명인 교회는 41.3퍼센트, 300명 이상의 대형교회는 11.4퍼센트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200명의 장벽'설은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는 교인수가 200명이 넘어서 담임목사가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 부교역자와 동역할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이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은 부교역자와의 동역을 꺼려했고 교회는 목회자 한사람에게 의존하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이 지역 교회는 200명의 장벽을 넘을 수 없는 성장에 한계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 제 2 절 건강한 교회를 통한 바람직한 성장

건강한 교회란 교회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교회이며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 사이에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감 넘치는 예배 회복을 통하여 성도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며 이런 결과로 질적인 성장과 양적 성장이 균형을 맞추어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만약 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충분한 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충분치 못한 성장은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의 경우 이 양자간의 불균형과 부조화로 말미암아 한쪽으로 치우쳐 다른 한쪽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양적 성장에 집착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놓치는 경우는 그 신앙의 내용에

3)오상철, "2011-2012년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 2012년 5월14일자 인용.

Online: <http://www.newspower.co.kr>.

있어서 미신이나 맹신 또는 단순한 기복신앙에 불과할 수 있다는 면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목회와 전도를 강조하는 목회 사이에 있는 긴장과 근원적으로 동일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이상적인 관계는 양자가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즉, 교회의 질적 성장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양적 성장을 낳으며 또한 동시에 양적 성장은 교인들의 열성과 신앙의 질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다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질적 양적 성장을 균형 있게 이루어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그 동안 한인교회는 “당신 교회는 몇 명이 모입니까?”라는 말로 대변되는 성장주의 흐름 속에서 오늘까지 교회 부흥과 역사의 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문화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미국 속의 한인교회는 부흥의 문제를 떠나 그 생존 자체를 결정지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문화발전과 지구와 같은 생명체를 가진 행성을 찾겠다는 의지 속에 연구되는 우주시대로 상징되는 과학의 발전은 과거의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목회자와 교회에게는 커다란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변화에 민감한 미국 속의 한인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신선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쓸림현상이라고 하는 수평이동이 눈에 두드러지는 것 같다. 전통만을 고집한다든지 이제 더 이상 부풀려진 실적과 거품이 든 업적 강조만으로는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물량적 교회성장 한계성의 극복을 외치며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교회 건강”이라는 말이다. 성장주의가 수단과 방법을 도외시하고 숫자적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반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할 경우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균형있게 재료를 감당하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어떤 수단이나 프로그램을 쓰든 어느 하나만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어 수적 성장만 가져오면 성공한 목회로 인정받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행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두 왕성하게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건강지수가 측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론에 릭 워렌(Rick Warren)의 *새들백이야기*가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그 후 가정교회, 소그룹목회 등으로 소개된 ‘셀 운동’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를테면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가 됨으로써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 질 것<sup>4)</sup>이라는 새들백 교회 이야기가 여러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가정교회는 각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라 부르지만 ‘구역’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sup>5)</sup>이라는 주장이 점차 교회 내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성장하는 교회나 쇠퇴하는 교회에 관해 연구하면서 소그룹의 계속적 번식은 보편적 교회 성장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sup>6)</sup> Christian A. Schwarz는 소그룹이 교회의 질적 특성과 양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소그룹이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전통주의 교회 역시 어느 정도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Ralph W. Neighbour에 의하면 셀그룹 교회들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셀그룹은 여러 다른 조직체들과 공존하는 교회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 생활 그 자체이다.<sup>7)</sup> 교회가 이러한 진리를 중심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순전한 꿈’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수세기 동안 비성경적이고 고착화된 전통들에 의해 서자 취급 받았던 본래의 생활양식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건강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쇠퇴의 기로에 서 있는 한인교회는 이제 성장지상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건강한 교회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전통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전환해야만 하는 네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4) Rick Warren, *새들백교회이야기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1996), 110.

5)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출판사, 2008), 19.

6)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정진우, 박동건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32.

7) Ralph W. Neighbour, *셀교회지침서 (Where Do We Go from Here)*,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5), 176.

## 1. 교회의 예배 회복을 통한 자연적 성장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인교회는 다른 미주 한인교회와는 그 특성상 약간 다르다. 미국에 이민을 오면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생활해 나간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70퍼센트 이상이 국제결혼을 통해 남편을 따라 이 지역에 이주해 온 여성들이다. 한인인인 그립고 외로워서 한인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로 교회의 수가 늘어나는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한인교회 성장이 성경적인 성장 모델이라고 주장할 수만은 없다.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숫자는 늘어났다 하더라도 교회의 내용과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만큼 성숙했다고 자신 있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21-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성경구절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교인을 모으고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목회가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외형적으로만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걸맞게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교회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교회이다.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취급되기 위해서는 영감 넘치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이다. 이렇게 영감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한 질적 특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교회는 의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유기적이고 생명체적인 특징이 살아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티안 스바르츠는 인간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연적 성장”을 추구하자고 주장한다.<sup>8)</sup> 따라서 미국 속의 한인교회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하려면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교인들의 신앙을 고칠 수 있는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회복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 2. 양과 질이 균형을 이루는 성장

필자도 어느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목회현장에서 교회성장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각해 왔다. 그런데 성도들의 잦은 이동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숫자로만, 통계적으로만 늘어가는 것이 교회성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이민교회라 하더라도 한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실제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리 교회가 커도 요한 계시록 2장의 사데 교회처럼 죽은 교회이다. 따라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바로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하다. 신약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은 특별히 교회성장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성장을 보면 먼저,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로 인해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20문도(행 1:15), 3,000명(행 2:41), 약 5,000명(행 4:4), 무리들,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행 2:47) 등등, 숫자적인 통계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도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늘어난다든지 또는 이민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쏠림현상에 의한 이웃교회에서 오는 수평이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이 아니다. 초대교회에서처럼 새로 믿게 되

8)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6.

는 사람이 늘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이다.

다음으로, 교회성장은 양적으로만 늘어났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질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말한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으나 저들의 신실성만은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민 교회 안에서 같은 이민자끼리 서로 사기치고 서로 불신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초대교회 당시의 질적인 성숙은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행 2:44)로 성도들의 자선사업 같은 사랑의 실천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성장한다.

### 3.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오늘 우리는 산업 과학의 발달로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인간의 생활은 어제보다 더 풍부해지고 더 편리해지고 있다. 물질은 풍부해지고 생활은 윤택해지는 반면 인간의 마음은 더욱 더 생명력을 잃어 가고 있다. 교육의 천국이라 일컬어지며 물질문명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민이 핀란드 국민이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불행하게도 신앙을 잃어버려 그저 태어나면 세례 받고 결혼식, 장례식 때만 교회에 가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되었고 현재 한사람만 사는 단독 가정이 전 국민의 50퍼센트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조울증, 알코올중독에 시달리고 있다.<sup>9)</sup> 이것은 물질 문명의 혜택 가운데서 인간의 정신과 영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고, 상상하기 힘든 상처로 인해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자연적인 영역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속성이며 형상인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sup>10)</sup> 목회자들은 현대인의 영과 마음을 진단하고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중문화 속에 사는 성도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완벽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로 인하여 답답함이 마음에

9) 이어령, 이재철, *지성과 영성의 만남* (서울: 홍성사, 2012), 72

10) 이중표, *교회발전을 위한 교회 개발* (서울: 쿰란출판사, 1996), 153.

쌓여서 분노로 변하는 수가 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하면 끈고한 심령에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분노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상대적으로 사랑은 증대된다. 상처의 이유는 분노의 마음을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바꾸어준다. 치유는 주님이 들어와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치유목회란 한 인간의 육신적인 질병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의 질병은 그 사람의 삶 전체의 균형이 어디에선가 파괴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인데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온전함(shalom)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치유이자 구원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환자를 관찰하기보다는 그가 살고 있고 관계 맺고 있는 삶 전체를 통찰할 때 전인 구원, 전인 건강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것과 치유하는 것이다. 특별히 치유사역은 복음서의 기록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치유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오늘날 많은 한인 교회에서 거의 무시되고 있다. 이제 미주 한인 교회는 성경적인 전인적 치유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목자로서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안목을 회복해야 한다.

한편 국제 결혼해서 이중문화 속에 사는 성도들은 인종을 초월하고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이들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올바른 자아상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맨즈(David A. Seamands)가 주장하는 자아상이 형성되는 근원은 네 가지다.<sup>12)</sup> 첫째는 외부의 세계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내부의 세계이고, 세 번째는 사탄이고, 마지막으로 자아개념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살펴보면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가족들의 거울에 반사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느낌과 영상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릴 때 가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

11) 정태기, *숨겨진 상처의 치유* (서울: 규장, 2002), 219.

12) David A. Seamands, *상한 감정의 치유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5), 102.

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대우와 사랑과 보호를 받았는가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 말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내부의 세계라는 것은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감각들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 이것이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심리학과는 다르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존재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간은 도덕적 중립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셨다. 오히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에 치우치며 잘못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한다(롬 3:10-18). 그리고 인간의 낮은 자존감 형성에는 사탄도 한 몫을 담당한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요 8:4), 참소하는 자요(계12:10), 또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이다(고후4:4). 사탄은 열등감을 주입하고 자신을 부적절하게 여기고 멸시하게 만듦으로 그리스도인을 패배시킨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자존감이 낮은 성도라 하더라도 인간의 자아 개념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제 낮은 자아상을 소유하게 된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상을 소유하는 능력의 근원으로 옮겨가도록 해야 한다. 질병으로부터 돌이켜 치유의 근원으로 향해야 한다. 성도들의 낮은 자존감의 치료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 자존감이 낮은 성도들의 잘못된 믿음이 고쳐지는 것이다.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겸손이라는 생각 속에 스스로 자신을 격하시키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에서 온 것이다. 자신을 낮추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덕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성결과 거룩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겸손이 꼭 필요하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믿음의 기본적 가르침에 역행하는 태도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 제일 큰 계명은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큰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의 연장으로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적절한 자기 사랑을 전제로 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이란 용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의

미로 전달된다. 그것을 바꾸어 자존감이라고 부르든지 혹은 자기 가치감이라고 부르든지 상관 없다. 분명한 것은 자기 사랑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반대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고 있다.

이중문화 속에 있는 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여건과 형편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 자존감이 매우 낮다. 그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치유방법은 이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첫 출발이다.

문제는 이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못 형성된 이들의 자아상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낮은 자존감을 떨쳐 버리고 머리를 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 4.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회복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알고 또 사명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 속에 교회가 가져야 할 영향력이 매우 미약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특별히 지역의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콜라라도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한인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없다. 이 곳을 관할하는 아니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이정관 총 영사관과의 지역 간담회 때 필자가 이 지역의 정확한 교민수를 물어 보았지만 답변은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인구 센서스를 하더라도 한인들은 대부분이 참여하지를 않아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18대 한인회 회장이자 필자가 담임하는 교회

의 장로로 섬기고 있는 분의 추정에 의하면 이 곳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대략 8,000명 정도이다.

2013년도 현재 콜로라도 스프링스 교역자 협의회에 가입한 교회의 교인수를 모두 합치면 1,300여명으로 추정된다. 가입하지 않은 교회의 교인수를 합치면 1,7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지역은 특히 이동이 매우 많은 곳이다. 짧게는 6개월마다, 몇 년을 주기적으로 교회마다 이동하는 분들이 많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되어 출발한 교회이다 보니, 타 교회로부터 수평 이동으로 오신 분들이 교인의 80퍼센트가 넘는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인 교인수는 타교회에서 필자 교회로 전입해 온 분들의 이야기와 현재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교회 교역자 협의회 총무로서 일하고 있는 필자가 타 교회 목회자의 일반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추정해 본 수치이다. 이것을 뒷받침 해 주는 한 예는, 교인들 대부분이 많은 교회를 수평 이동으로 출석 하다 보니, 교회마다 모이는 교인수를 거의 정확히 알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른 한인교회들의 교인 상황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회에 다니다가 나가지 아니하는 교인의 수도 알 수 있다. 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들의 하는 말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의 무력함을 말한다. 교회가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어 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실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원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한다. 특히 이 지역의 불신자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성령의 위로함을 받기 원한다. 왜냐하면 이 곳의 불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한 두 번은 출석해 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늘날 오순절적이고 은사적인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은 “그들의 신학이 영적 체험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미국의 젊은 목회자도 있다.<sup>13)</sup> 기독교가 진리이고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적극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연택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 가족의 유익,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영적인 힘과 정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충족시켜 줄 때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를 커다란 식당으로 비교하기도 한다. 소문난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과 같이 교회도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소문이 날 때 사람들이 몰려 온다는 것이다.<sup>14)</sup>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현대의 문화와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선택성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서도 교인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임과 집회를 각기 다양한 시간에 제공해야 한다. 예배의 시간과 형식도 다양하게 교인들에게 제공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여 2013년 3월 자료에 의하면 3만 명의 성도들이 주일 낮 6부 예배에 회집하고 있다.<sup>15)</sup> 그러나 사실 교회의 힘은 제자훈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예배에 참석한 경험으로 보면, 사랑의 교회는 예배 전체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함께 뜨겁고 간절하게 드러지는 교회 사역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부와 6부 예배는 찬양의 시간이 20분이 되며, 찬송가의 가사도 현대 젊은이들에게 맞는 곡들을 의도적으로 준비해서 함께 부르고 예배의 형식도 간단하다. 이 반면에 2부에

13) Doug Murren, *The Baby Boomerang* (Ventura, CA: Regal Books, 1990), p. 157.

14)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78.

15) 사랑의교회에 관해서는 사랑의교회 홈페이지(<http://www.sarang.org/default.asp>)를 참조하십시오.

서 5부 예배는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예배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지루하지 않게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의미 있고 감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 방법에는 출생성장(biological growth), 전입성장(transfer growth), 회심성장(conversion growth)이 있다고 한다.<sup>16)</sup> 대부분의 미국 교회의 경우 교회의 성장은 출생성장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 교회의 경우도 이제는 기독교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출생이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의 경우는 한국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등록하기 때문에 전입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교회에 나가던 교인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생활을 같이 하며 봉사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심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인들의 대화 속에는 이웃 불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타 교회의 목회자들, 교인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점들을 들추어내면서 교인들의 이동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우선적으로 불신자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관심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소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심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 제 3 절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 방향과 원리

#### 1.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질적,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목회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기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며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언제든지 그 생명의 열매들을 통하여 또 다른 열매들을 맺는 생명의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16) C. Peter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212.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반세기동안 교회성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성장을 위해 헌신해 왔다. 어쩌면 이러한 노력과 헌신은 당연한 것이며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성장 그 이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플러 신학교의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MacGavran)이 1955년부터 기초를 놓음으로써 시작된 교회성장학<sup>17)</sup>의 주된 관심은 지난 50여 년간 교회의 양적 성장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양적 성장에의 관심은 교회의 질적 성장만을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판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가 말한 것처럼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물론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방법이 목적을 앞설 수는 없다. 그동안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순서가 뒤바뀐 성장주의의 함정에 빠졌다. 성장은 꼭 필요하지만 성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질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양적 성장은 자연히 그 열매로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교인이 얼마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질적으로 건강한가를 물어야 한다. 교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들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크리스티안 슈바르츠가 만든 질문이다. 그가 만든 질문들은 8가지 질적 요인 중 하나와 관련이 있다. 이 질문에서 각 요인마다 8 내지 12개로 구성되어 있다<sup>18)</sup>. 예를 들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는가라는 질문은 ‘영감 있는 예배’의 질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면 예배의 질적 수치는 높이 평가된다고 한다. 또 영적인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의 소그룹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은 ‘전인적 소그룹’에 해당된다. 이 질문은 교회 성도들이 소그룹 회원이 되었으며, 그 소그룹이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또 기도를 하면서 큰 힘과 감화를 받는가라는 질문은 ‘열정적 영성’에 관한 질문이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삶의 힘과 능력을 잘 공급받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교회 활동이 잘 짜인 기획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은 ‘기능적인 구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질문은 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에 맞

17) Thom S. Reiner, *The Book of Church Growth*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93), 27.

18) Christian A. Schwartz, *자연적 교회 성장*, 22-37.

게 잘 조직되어, 추구하는 방향을 향해 온 성도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가는 평가 할 수 있다. 만일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낮은 점수로 평가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나 가족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즐거운가라는 질문은 필요 중심 전도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은 교회가 새신자들이나 새 가족들을 전도하여 데려오면 잘 적응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일 새신자를 데리고 와도 그들에게 대한 태도가 냉담하여 그들이 와도 제대로 어울릴 수 없는 분위기라면 이 질문에 대한 평가는 낮아질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최근의 용어들이 시사하는 바는 인위적이고도 비정상적인 수적 증가 위주의 교회성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건강한 교회로서의 성장을 강조하는 표현들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한인교회는 수평이동에 의한 쏠림현상을 피하고 각 교회마다 계속적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건강한 교회로 전환되어야만 할 것이다.

## 2.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는 목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목회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다. 이전의 리더십과 예전의 목회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목회 패러다임과 전략이 5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앞으로 5년 내에 그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학문명과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10, 20, 30의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가 되어왔다면 현재는 100, 200, 300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5년 후에는 1000, 2000, 3000의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교회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처럼 단지 역사 속에만 남는 교회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변화는 더 이상 교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교회목회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비로소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사이버 세상이 되고 사이버 교회를 거론하는 이 때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그 복

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날은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주의라고 비난하는 시대이다. 사람들이 종교의 껍데기가 아닌 진정한 교회를 기대하는 이때에 시대에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성경의 본질과 기능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가 될 때 가능하다. 건강한 교회로 전환이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와 과학을 초월해서 계속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기 전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지 한 기관의 활기를 말해주는 관료적, 종교적 기관이 아니고 세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구조적 공동체이기 때문”<sup>19)</sup>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3.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

건강한 교회 목회 패러다임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여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어도 성경적인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도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목회 패러다임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각 교단들도 연합과 일치룰 이루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며 경쟁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되지 못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가고

19) Tom Sine, *Taking Discipleship Seriously: A Radical Biblical Approach*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85), 47.

있다 (딤후 3:5). 따라서 사회를 개혁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제 이민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전환해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주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한인 사회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나 아니냐는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된 공동체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이시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된 공동체로 창조하셨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연히 관심을 갖게 되시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동체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인간들에게 공동체를 선물하셨다.

하나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이며 비전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꿈 가운데 하나가 진정한 공동체인데 그것은 그분과 하나됨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종류의 의미 있는 관계이다.<sup>20)</sup>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뒤에 남겨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품은 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주님의 꿈을 이뤄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체 건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항상 하나된 교회공동체를 만드셨고 또 그것을 추구해 오셨음을 보게 되며 이러한 일들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20) Andy Stanley and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Creating Community)*, 이중순 역 (서울: 디모데, 2007), 40.

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보다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만을 보여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데 그치는 신자들이 가득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때로는 가족으로(엡 2:19), 때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로(엡 2:20-22), 그리고 뿔 수 없는 한 몸으로(롬 12:5) 강조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만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정한 공동체는 우연히 성장하거나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예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된 교회공동체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 4. 성도들을 말씀으로 철저히 구비시키는 목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말씀으로 존재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생명이며 사역의 근본이 된다. 2천년 교회사는 말씀과 함께 발전했고, 말씀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잃었을 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존재가치를 상실했고,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했다. 언제나 교회의 위기는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지 못한 데 있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데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말씀위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이며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며,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이며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세상의 구속을 성취하셨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살리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이다.<sup>21)</sup>

모든 성도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역자로 일하며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빌 3:8).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이며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질적 양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의 첫 모델인 예루살렘교회는 이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예를 제시한다.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열두 제자들은 우선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인 율법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받았다. 그들이 열두 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율법을 대부분 암송할 만큼 토라(Torah)에 통달한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었다. 비록 그들의 출신성분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평민계층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출생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경험과 배경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반 동안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말씀들을 실제생활이라는 상황 속에서 부딪히고 경험함으로써 말씀의 체질화가 된 사람들이었다.

제자로서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은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그러하듯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들을 날마다 가르치며 제자로서 훈련시키는 일에 돌입했다. 이 점에 관하여 성경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고 기록하고 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날마다 집에 모여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제와 기도로 제자훈련을 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의 결과는 모든 교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엄청난 수의 개종자들을 얻는 양적 성장의 결과로 나타났다.

바울 사도 역시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행 19:9) 다른 지도자들에게

21) 이종표,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쿰란출판사, 2005), 11.

도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고 계속해서 권면했다(딤후전 4:11, 13).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중, 셀, 축제, 예배뿐만 아니라 훈련사역이 있어야 한다.<sup>22)</sup>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강조하셨다(마 28:20).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여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건강한 교회목회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 5. 교회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목회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없다.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균형을 맞춰야 하며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들이 균형을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티안 스바르츠는 65법칙<sup>23)</sup>을 통해 모든 요인들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크리스티안 스바르츠는 자연적 교회성장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질적 특성을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적 특성 8가지를 한가지 한가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았다.<sup>24)</sup>

첫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지도자는 사역을 위해 다른 성도들에게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

둘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교인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돕고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 배치를 해준다.

22) David Pinnel, *셀 교회 평신도 (A Simple Guide to Active Cell Life)*,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33

23) 크리스티안 스바르츠가 *Natural Church Development*에서 말한 이론으로 8가지 질적 수치가들이 최소치 65 이상이 될 때 교회가 성장할 통계적 확률은 99.4 퍼센트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24)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22-37.

셋째는 열정적 영성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사역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불붙어 있으며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

넷째는 기능적 조직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 조직을 평가, 개선해 나간다.

다섯째는 영감 있는 예배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 절차에 구체적 변화가 일어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을 맛본다.

여섯째는 전인적 소그룹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단순한 성경공부에 집중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매일의 삶에 적용시키는 전인적(holistic) 소그룹으로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처해있는 개인적 문제나 질문들을 내어놓는다.

일곱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가 전도의 초점은 불신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맞춘다.

여덟째는 사랑의 관계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친교와 교제를 통하여 사랑 표현을 하며, 장기간의 성장 잠재력을 위해 친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스바르츠는 이런 교회의 질적 특성 8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실현되게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고 설명한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하나의 아름다운 제도와 조직만 있지 신약 성경적인 기능과 생명적 관계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대교회는 신약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찾아야 한다.<sup>25)</sup> 그러나 그가 말한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 (교회의 5가지 목적과 기능)에 다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과 기능)이 균형을 이루고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1세기 목회환경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한 목회 패러다임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5) Gene Getz, *현대교회 성장학*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266

### 제 3 장

##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특성과 목회적 필요들

이민 교회의 경우 교인들의 숫자와 교회 재정은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일꾼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이민교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미숙한 교인들을 평신도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교회들이 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신앙 성숙과 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철학이 분명하지 못한 것과 평신도들의 훈련 부족에 있다는 것을 필자도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목회를 통해 절감해 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의 이중문화의 환경적 특징과 함께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역사적 현황과 특징들을 살피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목회적 필요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제 1 절 지역 환경적 특징

필자가 2005년 7월 1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와서 느낀 것은 미주 한인들은 다른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에 비해 월등한 교육열과 근면 성실함으로써 제 2의 유대인으로 불릴 만큼 성공적인 이민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면에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콜로라도는 이런 초기 한인 이민역사, 또한 현대 이민사와 뿌리부터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5년 서명한 이민법이 발효된 1973년부터 많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이민법이 발효되기 훨씬 이전인 1950년부터 이미 가족이민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로 미군과의 결혼으로 미국에 온 한인 이중

문화가정(국제결혼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대치하는 단어)의 가족초청을 통해 이루어졌다.<sup>26)</sup>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공군사관학교 및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도시이다. 2013년 3월에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의 4개 도시(콜로라도 스프링스, 호놀룰루, 워싱턴 D.C., L.A)를 타겟으로 잡았다고 보도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였다. 그 이유는 이곳에 미국 주요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군부대 지역에 일찍부터 미군과의 결혼을 통해 한인 이중문화가정이 터를 잡고 살아왔다.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통해 미국에 온 한인 부인들의 삶은 결코 녹녹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겨내며 미국에 든든히 뿌리내리고 살면서 가족을 초청하여 Korean-American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인교회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 형성되었다. 1973년부터 시작된 한인교회는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졌고 현재도 감리교회가 중심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사실 국제결혼을 통해 이민 온 많은 한인들이 고국에서는 기독교를 접하지 않았다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거의 80%에 달하다보니 교단이 무엇인지 교파가 어디인지도 전혀 구별하지 않고 교회를 선택했다.

2013년 3월 이곳에서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출신 교단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 수는 총 12개의 교회로서, 교단별로는 감리교회가 3교회, 장로교회가 3교회, 성결교회가 1교회, 침례교회가 3교회, 순복음 교회가 2교회이다. 그리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가 초교파가 2교회, 침례교가 1교회, 감리교가 1교회이며 장로교가 1교회이다. 총 15개의 건강한 교단의 기성적인 교회와 2개의 초교파 교회 외에 약 20여개 교회가 존재한다. 물론 이 중 한 두 교회는 가정교회로서 목회자 가족만으로 구성된 교회도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20-30여년 간 거주한 사람들로서 한인 사회에 서로의 가정 환경이나 사업을 비롯 많은 정보를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좁다.

이 곳 한인들은 한국인이 조금씩 생기자 한인교회를 만들어 한국의 음식, 언어,

26)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록 (콜로라도 스프링스: 주간 포커스, 2003), 189.

문화를 지켜왔다. 이중문화가정이 많기에 색다른 고민과 기도제목도 있다. 또한 아픔과 갈등도 있었기에 부정적으로 한인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척박한 땅에 한인문화와 교회를 세우고 지켜온 초기 한인교회들을 섬긴 신앙선배들의 노고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뿌리라고 생각한다.

지역 특성상 미군들을 따라 이곳에 정착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미군감축으로 인한 이중문화 가정의 감소로 인해 한인 인구 유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 지역에 새롭게 전도할 한인이 거의 없다. 기존에 자리 잡은 한인들의 숫자에 비해 교회도 많고 교회마다 다양한 생각과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교회마다 많지 않은 교인 중에 1세, 1.5세, 2세, 3세가 섞여 있다. 한인가정과 이중문화가정이 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과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더 나아가 한인교회이지만 미국인 가족들도 함께 있다. 이중문화권의 사역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그런데도 한인 숫자는 제한되어 숫자적으로 부흥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지역적으로 보면 한 교회의 부흥은 곧바로 다른 교회가 줄어드는 풍선효과를 즉시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 한인 이민자 교회는 성장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민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존재하고 있다. 이 일의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다. 이민교회의 목회자는 늘 바쁘다. 가정대소사에서부터 대외적으로 생긴 문제들까지 전부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서 삼일절, 6.25, 광복절을 이야기하고 한글과 한국음식 같은 한국문화와 정신을 지켜가는 중심이 이민 교회이다. 이 지역의 한인 이민교회는 이민자들이 뿌리를 내리는 중심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어려움도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쇼핑을 하듯이 둘러보고 자신이 원하는 환경과 취향의 교회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조국도 떠났는데, 어디든 못가라'하는 심정인 셈이다.

이제 한인 이민의 역사가 100년이 지나면서 한인들 중에는 일자리와 주택, 교육 환경 같은 좋은 삶의 환경을 찾아 나선 이들도 많다. 7,80년대 이민 온 1세대도 은퇴를 시작하면서 제2의 삶인 노후를 준비하느라 삶의 여건이 좋은 중소도시를 찾는다. 특별히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미국내 살기 좋은 5대 도시에 든다고 메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곳 조용한 한인사회도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따라

가고 있다. 이 곳 한인 이민 교회 역시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맞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군사 지역으로서 Fort Carson이라는 육군부대와 Peterson이라는 공군부대를 중심으로, Air Force Academy가 자리 잡고 있어 군, 장병과 그의 가족들 중에 한인이 많이 유입되기도 한다. 또한 군복무 기간인 평균 3년이 지나면 다른 부대로 전출하기도 하여 주기별로 많은 교인들이 이주한다.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군인 가족과 군인 은퇴 가족들이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미국에 새롭게 떠오르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도시이다. Focus on the Family, Navigator, David Cook Ministry, Youth with a Mission, Compassion, Out Door, ASCI(기독교 사립학교 연맹), 세계기독교용품본부와 같은 선교단체들의 본부가 밀집되어 있다. 많은 미국교회가 수요일예배 때도 가득 찰 만큼 활발하고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는 식당들은 조찬 성경 모임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신앙적 와해를 걱정하지만 미국의 신앙적 뿌리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또 새로운 비전과 사역을 만들어가는 도시이다. 새로운 미국교회의 흐름과 신앙적 비전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도시이다. 이런 많은 선교단체들이 준비해 있는 이곳 스프링스에서 자리 잡고 뿌리 내리는 사랑의교회가 앞으로 미국에서 이민목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 성장의 관점과 사역경험을 가진 이민목회자들이 한국의 교회와 동역할 기회들이 많아 질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 제 2 절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역사와 현황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Agape Church)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시에 위치해 있으며, 2002년 9월에 설립된 교회이다. 교인들은 70퍼센트 이상이 국제 결혼한 이중문화를 가진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교단별로는 순복음 교인과 장로교인, 침례교인, 감리교 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초교파를 고집하는 교회였지만 2011년 3월에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에 가입하였다. 필자가 2005년 7월 1일에 부임해 보니 전임 목회자가 3명이 거쳐 간 교회였다.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었고, 경계하는 시각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히 성

장해서 지난 2009년 10월에 부지 3에이커에 건평 11,000스퀘어의 미국교회를 매입해서 자체 건물에서 예배드리게 되었고, 1년 후인 지난 2010년 10월에는 장로 3인, 안수집사 3인, 권사 8인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2013년 4월 교회현황을 보게 되면, 담임목사 1인, 교육목사 1인, 사무장로 5인, 협동장로 2인, 은퇴장로 1인, 안수집사 3인, 권사 22인, 남자서리집사 15인, 여자서리집사 60인, 유치부 15인, 유년부 20인, 중고등부 25인, 대학부 10인, 장년 약 110인이다.

감사한 것은 이 지역이 군사지역으로서 군인들이 새로 이곳에 부임해서 교회를 찾는 가운데 해마다 군 목사님들이 오셔서 재임기간 동안 협력사역을 해주셔서 목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임기가 3년인데 이번 해에는 2가정의 군목사님 가정이 오셔서 주일학교와 Youth그룹, 대학부를 맡아주셔서 교육을 통한 교회성장에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

지원하는 선교지는 중국, 몽골, 이디오피아, 멕시코, 인도, 북한, 미국 청소년선도, 예수전도단, A.D. 농어촌, 농아선교 등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지역에 있는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몸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데 힘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교역자 협의회라는 모임아래 두 달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연합여름성경학교, 연합학생수련회 같은 교육적 프로그램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지역연합부흥회를 매년하고 있다. 또한 제의 수요일을 교회연합성찬예배로 시작하여 부활절연합새벽예배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다. 지역적으로 이민교회가 잘 연합하는 특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긍지를 심고 1세들에게는 신앙적 자료들을, 2세들에게는 교육적 지원효과를 위해 2012년 1월에 자체도서관을 개관하여 현재 적지 않은 도서와 CD, DVD,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등록된 자체 한글학교를 운영해 2세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효과뿐 아니라 한글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모들의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일들에 앞장서는 교회일 뿐 아니라 교회자체가 깊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다. 젊은 세대들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장년세대의 교회이고 매주 구역별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 함께 친교하며 사랑을 키우고 1년에 두 차례 봄 가을로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관광을 실시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한국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공식 선언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인도 있다. 성도들의 사랑에 감격해서 분위기가 좋다고 찾아 와서 예배하는 미군들도 있다.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쿠웨이트 등 중동에 계속해서 파병되는 미군에 복무중인 젊은 한인 2세와 부부들도 상당수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를 능가하는 재원이 모이는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과 한국에서 공군사관학교에 교환교수로 찾아오는 가족들이 미국교회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사랑의교회에 출석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한인과 접촉하고 있다. 오프라인이상으로 온라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새로운 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 지역에 오고 교회를 방문한다. 한국의 50배가 넘는 넓은 미국에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나서는 한인들에게 인터넷은 무척 유용한 선교 도구이다 (의외의 조회수도 놀랍다).

이와 같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성장에는 지난 세월 속에 어려움과 문제들 또한 적지 않았다. 지역의 특성상 한인이 많지 않다보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했고 그 한사람을 성도로 만들기 위해 잦은 심방이 이뤄졌고, 사소한 일까지도 교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교인의 신앙 교육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교인들의 교회생활이 세속화 되어서 세상적인 놀이문화가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예배보다는 모여서 먹고 노는 문화가 자연스럽다 보니 믿음 생활 보다는 개인 생활이 우선시되어 교회행사들이 신앙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 중심이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전통이라는 미명아래 주일날 고추 따러 가서 밭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등 예배와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이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 자리 잡고 있었다. 헌금의 개념들이 분명치 않아서 헌금을 목사의 사유화로 생각하는 교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목돈으로 모인 건축헌금을 높은 금리로 계산해 줄 터이니 차용해 달라는 교인도 있을 정도로 기본도 모르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많이 있었다. 4장에서 구체적

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교회의 본질도 모르는 성도들을 제자훈련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대학, 일대일 양육 등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중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교육과 훈련에 잘 따라와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과 훈련에 불만을 품고 다른 교회를 전전했던 성도들이 다시 들어와 함께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뿐 아니라 이종문화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며 협력해서 하나님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러한 이종문화 속에서 건강한 교회성장의 시각에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비전과 동역에 대해 생각해보면 다문화가정이 한국에 많아진다고 한다. 2009년 5월 31일 현재 다문화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2.2퍼센트에 해당하는 1,106,884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sup>27)</sup>

사실 다문화 공동체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슈는 인종간의 관계이다.<sup>28)</sup> 교회가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다문화 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해결 노력이 먼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다문화교회는 서로에게 친절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속에 한 단계씩 세워 나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섬겨야 할 한국교회에 한인이민교회는 그 사명을 앞서 감당한 공동체이다. 섬김의 공동체, 어울림의 공동체로서 한인 이민교회인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에 좋은 동반자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국제화시대에 한국교회와 협력할 비전과 사명이 있다고 믿는다. 초기에는 열심히 살아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지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이민의 최종 목적은 결코 아니다. 고국을 떠난 뿌리 뽑힌 공동체쯤으로 여기지 말고 한인 디아스포라인 한인 이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좀 더 큰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가 될 것이다.

27) 2009년 통계, 행정안전부, 2009.7.

28) 양명득, *다문화사회 다문화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75.

## 제 4 장

###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한 전략

교회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분을 주님으로 삼고 그 분께 예배드리며 그 분의 사랑과 뜻을 이 땅 위에 삶으로 심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구원 받은 자들의 모임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보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있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습관에 이끌리어 교회에 나오며 형식적인 예배 자기들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예배, 기복신앙적인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하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위에 바로 서서 믿음생활이 갱신될 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바로 개혁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많은 전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배의 본질 회복에 대한 노력과 강조가 특별히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 제 1 절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위해 봉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와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시122:1).

그러나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봉

사하는 것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알고 봉사를 권장하는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예배가 없는 봉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자신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주일 낮 예배 시간 중에도 예배실을 들락 날락하며 예배 후에 있을 친교준비에 예배를 소홀히 하며 예배를 산만하게 하는 일을 매 주마다 반복되었다. 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늘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다.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에게 속하였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빌2:8-11).

예배의 순서에 있어서도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인간의 사고와 문화가 변천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형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는 가운데서도 축제적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한 교회들은 “모이면 축제적 예배, 흩어지면 소그룹을 통한 성숙”을 표어로 내걸고 성장하고 있다. 이 교회들은 예배의 축제성을 중요한 목회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교회로는 현재 12,000명이 모이는 조지아 주 애틀란타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를 들 수 있다.<sup>29)</sup> 이에 반해 한국교회의 전통적 예배는 경건과 회개는 강조했지만, 기쁨과 성결한 삶을 퇴조시켰다. 이민 교회 예배의 한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친다는 것이다. 왜 언제부터 이러한 예배 형식이 한국교회 예배의 매뉴얼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까지도 묵도로 시작하지 않고 축도로 마치지 않으면 잘못된 예배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예배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이단 소리를 듣는 게 현실이다. 사랑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금만 기존의 예배 순서를 벗어나면 장로 몇몇이 필자에게 예배순서에 대해 항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순서가 성경에 예시된 예배 형식도 아니고, 더욱이 개혁주의적인 예배 형식도 아니다. 단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형식이 굳어졌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 경직성까지 겹쳐 이를 절대화하게 됐다. 최근에 와서 예배 갱신에 대

29) Andy Stanley and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98.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갱신의 사회적 필요성을 느끼고 예배형태의 적절한 변화를 요구하는 교인들의 움직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변하고 국가 행정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지방분권적 구조로 이동하며, 컴퓨터가 생활 중심이 된 사이버 문화가 도래함으로써 현대인의 사고구조와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고, 이렇게 달라진 삶이 예배까지도 새롭게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적절한 변화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 하려는 시도를 조심스럽게 해본다.

## 1. 예배의 특성

### 가. 예배의 만남 회복

예배는 개인적이고 정신적 활동의 영역이 아니고 명상이 아니다. 명상은 매우 고상한 종교적 행위이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종교적 명상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희생시켜서 이룩하신 신비스러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한 것이다. 아무리 즐거운 예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린 예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다(고전 1:1).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 존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의 피 값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고전 8:11, 엡1:7, 뱀전1:18-19). 교회는 단순히 인간의 자기 충족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호와의 영광과 주권을 위한 신실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 나. 예배의 공동체적인 만남 회복

개인적이고 은밀한 경건한 경험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일 수 없다. 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예배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헌신, 몇몇 친구들과끼리 어울려서 하는 헌신, 또는 경험이나 간증을 나누는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적인 예배일 수 없다. 간증과 설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배의식이라는 일정한 질서와 규범을 따라야한다. 모든 교회는 자신들의 예배 의식을 갖고 있다. 예배의식은 예배를 도와주는 것 뿐, 예배의식이 예배의 전부 는 아니다. 그래서 개혁 교회나 무슨 교회나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의식을 갖게 된다. 따지고 보면 예배의식은 예배를 좀 더 바르게 드리기 위한 조력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배의식과 예배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 둘을 서로 나눌 수는 없다. 예배는 규칙을 따라서 하는 집단적인 만남이다. 이 말은 무슨 시간이나 장소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질서와 규범을 쫓아서 행해지는 예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배 질서를 이른바 예배 의식이라 한다. 예배 의식은 비유컨대 요리법과 같다. 좋은 요리사는 좋은 요리법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교회는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예배 의식을 갖고 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한정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규정되었다는 말이다.<sup>30)</sup>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규칙적이고 공동체적인 만남이다. 어떤 성도는 예배가 대화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배 순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도 있고 회중들이 응답하는 순서가 있어서 예배를 대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배가 대화라는 말은 불완전한 말이다. 왜냐하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동격 관계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드리는 행위이다. 대화가 아니다. 예배가 어떻게 너와 나와의 대화인가? 대화는 내가 이 말하면 내가 그것

30) G. L. Williamson,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강해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나용화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261.

을 받아서 주고받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대화이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규칙을 따라서 만나는 것이다.

#### 다. 찬양의 회복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필수적인 내용이다. 시편에서는 예배의 성격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단어를 찬양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또 성경에는 예배를 특징짓는 말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시 95:2). 그런데 이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예배자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찬송 가운데도 사실은 주일 대예배에 부를 만한 찬송이 별로 없다. 영광, 존귀, 찬양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 별로 없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단지 은혜만 많이 받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와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물론 전통적인 예배의식과 다른 프로젝트를 통한 예배 동영상이나 성극 같은 프로그램도 좋아야겠지만 그 프로그램에 너무 큰 비중을 두면 안 된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능히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훈련시켜 내보내야 한다.

예배는 축제여야 한다(고후 13:13). 그러나 그 축제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격에서 나온 축제여야지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뿐 아니라 받기도 한다.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한 결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의 원천이다.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예배는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네 번 정도 선포한다. 먼저는 예배가 시작될 때 성도들에게 문안의 말씀이 있고, 둘째는 죄의 고백에 따른 용서의 말씀이 있고, 셋째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감화하며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고, 넷째는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송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선포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다.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역동적이고 감동적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한다.

## 2.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갱신의 원리들

구약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예배이며(스6:22),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받으신 예배이며(시104:310,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예배(시132:16)이다.<sup>31)</sup> 그러므로 구약이 가르치는 예배는 철저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인간 최고의 행위이다. 구약의 예배는 형식과 내용이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레위기를 통해 규정된 형식과 절차대로 예배드렸으며, 이것을 무시하거나 위반했을 때에는 준엄한 책망이 따랐다. 구약에서 종교개혁은 예배 갱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할 때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깨끗이 하고 집례자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재조직하였고, 예배에서 반율법적인 요소들을 제거했다(대하 31:1). 예배에 바쳐진 예물과 십일조를 확실하게 관리하고 예배 참여자들이 죄사함의 의식을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게 했다(대하 31:6).

신약에서 예배는 제사중심의 예배에서 제사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개혁된 것을 의미한다.<sup>32)</sup> 그러므로 예배는 '경배'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가 잘 나타난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인 것을 여러 번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동방박사(마2:11), 딸의 치료를 요청한 한 관원(마9:18),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에 현장에 있던 제자들(마8:27), 딸을 고쳐주기를 바라던 이방 여인(마15:27)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반면

31) 리재학, *DTP 교리강해연구* (서울: 선린출판사, 1991), 128

32) 리재학, *DTP 교리강해연구*, 172

에 예수님께서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찬히 선포하신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신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자로 규정하고 구약과 다른 게 있다면,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신약이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예수님께 적용하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배의 장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며, 예배의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때이며, 예배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요4:21-24).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예배의 목적이 성경적이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가 물어야 한다(요 5:23-24).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배의 인간 중심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성경적 예배로 돌아왔다. 사제들의 예배 의식이 아닌 회중 모두의 경배로 전환했던 것이다.

둘째, 예배의 내용과 형식이 충실하고 예배 원리에 적절한가를 물어보아야 한다(요 4:24). 목도로 시작하고 축도로 마치는 순서가 성경적인지, 이 순서가 예배에 필수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몸으로 드러지는 예배인가를 물어봐야 한다(롬 12:1-2). 예배 인도자와 참여자가 함께 예배자로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듣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 나아가서 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예배에 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행동에 대한 신앙고백이 항상 있었다(신 26:16).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흘러야 한다.

다섯째, 우리의 예배가 예배시간 만이 예배인지 일상생활의 예배인지를 물어야 한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다(롬 12:1,2). 그러므로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예배를 구분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예배는 그 내용과 형태에서 재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물론 한국교회만의 전통은 아니지만,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모

여 철야 기도회를 갖는다. 이전 같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던 때에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당연하고 불편이 없었지만, 요즘과 같이 여유가 없는 이민자들에게는 상당한 무리와 불편이 따르고,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한 죄의식까지도 겹쳐 괴로움을 더한다.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의 생활은 각각 다르다. 이민 교회는 이 같은 생활의 차이에 따라 예배 형식과 집회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필자가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 교회에 부임한지 4년 후인 2009년 7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구입했으며, 이를 계기로 당회에서 새로운 예배 시간을 조절하게 되었다. 형식에 너무 의존해서 모이지 않는 주일 저녁집회나 금요철야 기도회는 없애고 수요일예배를 찬양예배와 기도회 형식으로 해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성도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 3.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목적인 죄인의 회개(행 2:38)와 성도의 교육으로 진리 안에서 성장케 하고(엡 4:13),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장케(갈5:22) 하며 한 성령 안에서 영적 교제(빌 2:1)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롬11:36)을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예배 갱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갱신이란 본질의 회복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배가 가져야 할 본질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축제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본질을 상실한 축제만 벌여서는 안 된다.<sup>33)</sup>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어야 하고, 예배의 전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식의 바탕을 이룬다. 또 말씀은 성례전을 조명해주는 빛이다. 말씀의 빛이 없으면 성례전은 하나의 환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예배갱신은 단순히 예배 스타일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회개와 영성을 재충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흔히 예배 갱신이라면 각광을 받고 있는 몇몇 외국 교회의 예배 형태를 모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말씀과 의식, 성례와 말씀, 말씀과 찬양이 조화된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갱신의 초점이어야 한다. 예배의 설교, 기도, 성찬, 찬송, 친교 등의 요소가 회복되어 모든 예배의 요소가 참여자들에게 의미를 주고 축제적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

33)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75.

는 것이 예배 갱신의 요점이다. 특히 로마 가톨릭이 성찬 중심의 예배에 고착하여 예배를 너무 신비롭다 못해 미신적인 행위로 변질시킨 데 반기를 든 개혁자들이 저지른 실수, 즉 지나치게 말씀 중심적인 예배를 강조함으로써 상실하게 된 성찬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츠빙글리는 개혁을 하면서 성만찬을 없애버리고 설교만 했다. 칼빈이 30년 후에 나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창하며 말씀과 성례전 회복을 주장했다.<sup>34)</sup> 그래서 말씀과 성례전 이 두 가지요소가 반드시 예배에 상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준칙이다

교회는 예배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를 개개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하셨다.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된 그리스도이며 그분만이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sup>35)</sup>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기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는 기독교적인 필수 사항이며, 성령의 도우심과 활동하심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 교제사건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종말론적인 새로운 삶에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성도가 예배를 관람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현장이 되어 경건성과 은혜성이 있어야 한다. 인간 중심의 예배는 경건성과 은혜를 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지나친 의식화와 경직성은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깊은 감동과 흥미를 잃게 하여 출석율을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한번 예배드림으로 모든 의무를 다 했다는 생각보다는 삶과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부활과 구속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대속, 헌신과 순종, 봉사와 교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예배드릴 때 더 많은 참여와 감동을 받아야 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먼저는, 하나님과 개인적

34) 이종표, *교회발전을 위한 예배 개발*(서울: 콤파스출판사, 1998), 264.

35)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The Origin of Paul's Gospel)*, 홍성희 역 (서울: 엠마오, 1994). 115-116.

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기도, 영감이 있는 설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포 및 성만찬의 조화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유도한다. 둘째, 회중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체적 예배, 셋째, 은사 또는 축복 추구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한다.

## 제 2 절 역동적인 예배를 위한 전략들

영적인 감동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기초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사실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종말론적인 새로운 삶을 살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예배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와 교통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사소통이 의식되어야 하고 언약갱신의 축제와 의식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sup>36)</sup> 역동적인 예배란 어떻게 해야 예배 참석한 신자들이 감동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있다.<sup>37)</sup> 사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교인중의 몇몇은 예배에서 생동감을 찾아보기보다는 그저 습관에 이끌려서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 예배의 감격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성전문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기도 하였다. 그 경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영감 있는 역동적인 예배의 준비, 전략을 세워 보려고 한다.

### 1. 역동적인 예배 준비

영감 있는 역동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역동적인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축제적인 분위기의 예배이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36)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솔로몬, 1993), 300-302.

37)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 지침서 (Implementation Guide to Natural Church Development)*, 이준영, 오테균 역 (서울: NCD, 2000), 92.

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인격과 삶 자체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야 한다. 이 전략은 예배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예배팀을 구성하고, 주변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함께 참여해 보았다. 방문의 목적은 영감 넘치는 예배의 역동성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이었다. 예배팀들이 역동적인 예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다.

첫째는 예배 팀에게 예배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예배를 위한 합당한 준비는 이해와 고백이다. 진리에 대하여 열려있고 불의에 대하여 단혀진 심령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분명한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다(출 30:18-21).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히 10:22).

셋째는 예배드리는 회중들을 교육시켰다. 예배 시작 전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는 반드시 기도할 것, 가사에 착념 하여 진심으로 찬송 부르고, 성경을 펴고 본문을 열심히 봉독하여 읽고, 주보를 보고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진실 되게 신앙을 고백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설교를 듣고, 예배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돕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삶 자체로서의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격이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로 드리게 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게 해야 한다.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예배를 촉진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초대하고, 회개와 용서와 찬양과 감사와 중보기도 시간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보조수단을 발견하도록 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넘치는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팀을 중심으로 해서 힘썼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넘치는 살아 있는 예배'는 교회가 활기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 빠뜨릴 수 없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이는 새로운 세대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오늘날과 같이 변화무쌍한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구식 물레방아를 돌리는 식으로 옛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생산적인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양측을 이루는 'God's New Society'이다. 교회는 우리를 창조하고, 사랑하고, 속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도하고, 능력을 행하셔야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의 능력과 세상적인 노하우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고 참으로 그 임재 가운데서 설교와 가르침에 임하고 있는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전도에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자문해 보았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살리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배를 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첫째,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후원팀이 가동되어야 했다. 그래서 필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서 뭔가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할지 모르는 권사님들을 동원해서 토요일에 모여 다음날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적은 수라도 사명을 가지고 모여 기도하게 했다.

“주여, 내일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예배팀을 중심으로 설교자와 기도자, 찬양인도자, 찬양대, 그리고 주차사역, 교육사역에 기름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력과 재능으로 예배를 섬기지 않게 하옵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 좋은 예배보다도 좋은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한다.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살아서 움직이는 찬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찬양이 있다. 바로 영적 조명이 비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마치 강단에 사회

자가 쬐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과 같다. 사진도 방향에 따라 빛의 양도 달라지고, 이 빛에 따라 사진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조명을 받는 사역과 그렇지 않은 사역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사역에 은혜의 조명이 비춰야 그 빛을 받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춤추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토요일 새벽마다 장로들과 안수집사로 구성된 구역장사들이 나와서 구역 공과공부 뿐 아니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권사님들이 모여 기도하며, 예배팀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일예배에 은혜의 조명을 비추는 것이다. 은혜의 조명이 환히 비춰지면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사회자가 강단에 서기만 해도 기쁨부음이 넘치며, 기도자의 태도가 벌써 다르고, 설교를 해도 경청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사역자들이 모두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은혜의 조명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찬송 하나부터 예배의 용어를 선택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흐름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다듬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말로 되기보다는 경험으로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예배의 모든 부분에서 결사적인 결단의 기도,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 영권 회복의 축복을 받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영감 있는 예배,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혼의 회복과 예방 사역을 위해 오늘날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공적 예배의 축복이 있어야 결국 영감 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주중에 드리는 생활예배와 직장예배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 2. 예배전략

영감 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의 깊이를 연구하여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성격은 사뭇 거리가 있다. 구약의 제사가 죄의 고

백과 사죄의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신약의 예배는 구원의 감격과 찬양 그리고 어린 양 예수께 대한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신약의 예배는 항상 감사와 찬양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높이 올려지는 승리의 제사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필자는 의식을 중시하는 구약의 예배(시 99:5)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래서 언제나 예식을 중시하고, 형식적인 성격이 강하고, 전체적으로 차분히 가라앉은 분위기의 예배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래서 자유 분방한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무척이나 짐스럽고 갑갑해서 견디기 어려운 예배 형태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필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교인들에게 매주일 자유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주일 아침마다 쩡그리고 피곤한 얼굴을 하고서 예배를 참석하면 금방이라도 예배의 분위기가 경색될 것 같아서 모두에게 서로 웃으며 인사할 것을 권한다. 물론 필자도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회중을 보며 웃고 강단에 서도록 하고, 안내 위원의 선발 우선 순위도 웃는 얼굴을 가진 분들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이 모든 것이 영감 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작은 노력들이지만, 이런 예배가 힘겹게 이민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소력을 줄 것이라는 사실에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보는 시대, 즉 시각과 청각 외에 느끼는 시대로 다가왔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인들은 이제 듣는 복음에서 보는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배에 대한 감격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가진 재능으로, 마치 브사렐(출 31:2)과 오홀리압(출 31:6)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형식적인 예배에서 예술적으로 승화되고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고 서양의 수채화처럼 운치와 여유로움이 조화된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그리고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이런 점에서 열려 있는 셈이다. 매주 아침 일찍

부터 나와서 프로젝트와 음향을 비롯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준비하는 스텝들과 예배를 준비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팀과 반주팀, 이를 뒤에서 후원하는 기도팀, 예배중보기도팀, 새가족환영팀, 예배를 돕는 안내팀, 교회의 실내를 책임지는 안내팀, 필요한 교회 유인물을 배포하는 문서선교팀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예배를 돕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역을 감당한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하는 예배는 늘 신선함과 창조성이 있는 예배가 될 것이다.

#### 가. 예배에 대해 교육하기

교인들을 교회 출석율을 높이려면 교육을 잘 시켜야 하듯이 목회자는 공중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일이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는 법을 교육시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과 사랑으로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법들을 깨닫게 해야 한다.

바나(Barna)리서치 그룹에서 예배 정기 출석자를 대상으로 1998년 1년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출석자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었다. 예배의 목적을 개개인의 유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자기가 이해하기 쉽고 듣기 좋은 설교,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어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죄를 뉘우치려 하지도 않았다.<sup>38)</sup> 그러나 예배는 성경의 명령이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배를 통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sup>39)</sup> 따라서 필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 교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배팀을 중심으로 예배의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예배부장을 통해 점검한다.

38) George Barna,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 (The Habits of Highly Effective Churches)*, 조계광 역(서울: 생명의 말씀, 2001), 88-90.

39) George Barna,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 95.

#### 나.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만들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적 계시에 대한 성도들의 인격적인 응답이 예배일 것이다. 예배드리는 곳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믿음의 광장이다. 예배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이 예배가 되면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소하게 살아간다.<sup>40)</sup> 예배의 생활화는 모든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예배의 생활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드리지는 훈련을 하고 있다. 매일 드리면 좋겠으나 1주일에 1번 이상 모이는 시간을 결정하고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관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묻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훈련하고 있다. 여러 예배를 통한 생활화를 위해서 구역예배를 중심으로 소그룹의 모임을 강조하고 더불어 소그룹과 구역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이 곧 예배가 되도록 유도한다.

#### 다. 예배 주제를 명시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기

예배 주제를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임의 성격을 구별하면 분명한 모임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는 특별한 예배를 계획하는 것이다.<sup>41)</sup> 필자는 말씀에 기초하여 선정된 주제와 부합하도록 예배를 주제성 있게 계획하여, 예배형태를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예배 프로그램은 교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배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배를 준비할 때는 어느 그룹에 가장 잘 맞는 지 고려해서 준비 한다. 예를 들면 수요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린다. 그렇다고 수요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단지 복음성가나 부르고 성경이나 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인

40) Robert E. Logan and Tomas T. Clegg, *자연적 교회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 (서울: NCD, 2002), 172.

41) Robert E. Logan and Tomas T. Clegg, *자연적 교회성장*, 100.

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도 예배의 주체를 명시한다. 그리고 예배가 교회의 예배팀과 적합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누가 이 예배에 참여할 것인지, 이것에 더해 목표 그룹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예배의 빈도수를 결정하여 주일에 예배를 1, 2부로 반복해서 드린다. 또한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때에 어떤 다양한 양식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예배의 초점과 지도자들의 은사, 열정, 능력에 의존해서 정한다. 각 예배마다 예배에 맞는 예배팀을 개발하고 팀 멤버들은 반드시 팀 플레이를 하게 한다. 팀 멤버는 음악적 능력, 예배팀 지도자는 예배시간에 사람들을 인도할 능력, 예배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그 계획들을 실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포함된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듣고 알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도와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다. 그것을 위해 다양한 매개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배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점검한다. 새신자의 시각에서 평가하며 참석자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목적으로 예배의 광경을 영상 매체에 담기도 하며 확인과 교육과 개선을 위하여 노력 한다. 예배팀을 예배 계획을 세우는데 , 예배를 평가하는데 참여시킨다. 예배팀과 예배리더를 기술적으로 훈련시키며, 예배리더를 위하여 멘토링을 제공한다. 예배팀은 3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 촉진시키는 것이다. 필자는 예배준비를 위해 관계자들의 역할 분담 뿐 아니라 심지어 권사회에서 주관이 되어 예배를 위한 기도회까지도 세심하게 준비해서 서로 유대 관계 속에서 예배를 준비한다.

## 제 5 장

### 양과 질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전략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가 이중문화 속에서의 교회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의 표적 가운데 하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였고 날마다 그 신자의 수가 늘어가는 건강한 교회였다. 곧, 120명(행 1:15)으로 시작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3,000명(행 2:41), 매일 증가(행 2:47), 5,000명의 남자(행 4:4), 계속 증가(행 5:14; 9:31; 12:24), 제사장들 포함(행 6:1, 7), 수만 명(행 21:20)에 이르는 교회로 성장했다. 이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양적 성장(expansion growth), 질적 성장(internal growth)을 균형있게 유지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중문화 속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 제 1 절 양적 성장을 위한 목회 활동

##### 1. 양적 성장을 위한 목회 전략

양적 성장이란 외적으로 나타나는 개체 교회 교인수의 증가를 말하는 것으로<sup>42)</sup> 출생성장, 전입성장, 회심성장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마치 양적 성장이 교회 성장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양적 성장에

42) C. Peter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212.

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목회 초기부터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양적 성장에 관심을 집중하고 양적 성장을 위해 열심히 목회했었다. 교인이 한 주만 빠져도 곧바로 심방을 가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고 아프다고 하면 죽이나 국 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심방하며 교인들이 탄 교회를 기웃거릴 틈을 주지 않으려고 힘썼다. 그러나 수적인 증가가 교회 성장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교인들이 습관화되어 실제적인 성경공부나 소그룹 모임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이 이뤄지기 보다는 목회자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 교회를 찾는 일들이 빈번해졌다. 필자 또한 목회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렇지만 수적인 증가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가. 목회자 자신의 신앙과 지도력 함양을 위한 노력

필자는 자신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곧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심'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장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목회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 쉬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언제나 교회에서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교회의 사명이 잃은 자를 찾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함에 있으며(눅 15:4) 목회자는 이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일꾼인 것을 기억하고 늘 구원론적 신앙으로 구령열에 불타는 목회자가 되기에 힘쓰고 있다(고전 4:1).

지도력 함양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은 물론 목회의 성실과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목표 설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신뢰감을 주는 목회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목회자의 신앙과 지도력 역량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비전이 없으면 교회성장이 저해된다.<sup>43)</sup> 필자도 콜로라도 스프

43)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4), 102

링스 사랑의교회 성도들에게 늘 교육과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교회 예산의 20퍼센트 정도를 선교에 책정하고 집행할 뿐 아니라 교육 부서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 나. 평신도 훈련과 활용

이 지역의 이민교회 특성상 부교역자를 두기만 하면 교회가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 전문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를 훈련해서 활용하는 것이 교회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평신도들을 잠재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44)</sup> 교회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고 사역을 맡기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교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은사로 사역한다면 교회의 성장은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다. 김연택에 의하면 미국의 한인교회의 경우 평신도로 봉사하는 경우는 10퍼센트, 교회사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50퍼센트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sup>45)</sup> 교인 중에 40퍼센트는 교회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거나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인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라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한인교회가 가지는 문제 중 하나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평신도들을 개발하여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여 관망자를 참여자로 바꾸어야 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평신도를 훈련하여 받은 은사와 재능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양적 성장에 큰 몫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서는 특별히 구역 강사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며 구역장을 중심으로 구역이 이루어지게 했다. 즉, 평신도 사역자인 구역 강사들을 교육할 때 각 구역이 작은 교회이고 각 구역 강사들이 작은 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구역을 돌아보게 하므로 각 구역들을 하나의 교회로 성장시키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전도부에서는 각 구역의 보고들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또 년 1회 부흥회를

44)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36

45)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441.

통하여 영성 훈련은 물론 회심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신자를 얻기에 힘쓰고 있으며, 새신자 양육반을 개설하여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있다. 왜냐하면 곧 평신도들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이다.

#### 다. 복음 전도의 강화

신약 성경을 보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안드레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도하였다(요2:42).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 하였다(요2:46). 세리 마태는 다른 세리들을 위해 저녁전도 만찬회를 개최하였다(막 2:15). 수가성의 여인은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이러한 성경의 실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도의 최상의 전략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다. 교회마다 사람마다 각각 전도대상과 전략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 전도를 최우선으로 알고 실천할 때 교회는 성장한다. 그러므로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서는 복음 전도를 사회 봉사보다 우선하여 왔다. 문서선교부에서는 삼 개월에 한 번씩 겨자씨라는 계간지를 만들어 복음전도에 앞장서고 있으며<sup>46)</sup> 이 계간지를 매월 한 차례씩 나가는 노방전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인들이 전도에 관심을 갖게 하도록 하면서 실제로 전도에 임하게 하며 복음 전도가 교회 성장의 초석임을 인식시켜 날마다 회심 성장이 있도록 강조한다.

#### 라. 예배 분위기 개선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관심 있는 사역은 없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 교회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새들백교회의 릭 위렌 목사는 미국의 10대 대형 침례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sup>47)</sup>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예배를 우

46) 겨자씨의 샘플은 부록에 실었다.

47)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192.

선 순위에서 둔 교회들은 적어도 연간 10퍼센트씩은 성장했고 지난 10년 동안 25퍼센트씩 감소한 교회들은 예배를 사역에서 가장 효과 없는 것 중의 하나로 여겼기 때문이다. 은혜스럽고 경건한 예배와 회중의 온화하고 하나된 분위기는 유창한 설교나 매혹적인 건물보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민 교회일수록 예배와 회중의 분위기는 양적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양적 성장을 위하여 교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에 힘쓰고 있다. 책망보다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칭찬할 것이 발견되면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회중의 사기 진작에 노력하고 있다. 교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은 성장하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반드시 하여야 할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기 진작은 반복적인 순환성을 가지는데 고도의 사기는 교회 성장으로 전도되고 그것은 더 높은 사기를 유발시키고 그 사기는 더 큰 성장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기 진작이 교회의 양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 가지 성취 목표를 이룰 때마다 사기 진작의 호기회로 삼고 칭찬과 격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경우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이러한 온화하고 사랑스런 분위기를 통하여 회중의 사기가 진작되면서 교회는 한 마음을 품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마. 주일 성수 교육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희박하다. 주일에 직장이 교회보다 우선인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연휴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여행을 가고 집안의 대소사도 주일을 끼고 계획들을 잡아서 주일을 범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주일이 무슨 휴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날인지 구분 없이 신앙 생활하는 성도가 있다. 따라서 주일 성수에 대한 교육이 참으로 절실하다.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 날을 “주의 날”이라 하였고 부활 이후 안식일에 모이던 공동 집회가 주일에 모이게 되었다(행20:7).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완성될 구약적 예배가 이제 마감되었고, 신약 교회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sup>48)</sup>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던 안

48) 리재학, *DTP 교리강해연구*, 502.

식일인 제7일이 기독교의 주일인 제1일로 변경된 연유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의 의미를 계승한 주의 날인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주일은 안식의 개념을 보존해야 한다.

안식일의 유대교적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대인들은 천지창조를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으며 그런 의미에서 안식도 유대인을 위한 안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일을 놓는 날이었다. 초기 기독교가 그 틀을 형성하면서 유대교의 안식 개념이 그대로 기독교의 주일에 전수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를 따져야 할 문제이다.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평일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주일에 하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다. 평일에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주일에 하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주일성수에 대해 선한 일과 부득이 할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sup>49)</sup> 이 말은 주일에 무엇을 한다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모든 주일의 행위가 안식의 개념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일 성수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다. 왜냐하면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근거가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주일은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고 재창조가 시작되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sup>50)</sup>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선포와 치유와 죽음으로 실현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모으신다는 예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 선포와 치유, 대속과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를 통하여 종말론적인 구원이 온 인류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그의 죽음과 부활을 구원의 핵심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된 것이다.<sup>51)</sup>

그러므로 주일에 모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언약을 기념하고 하나님

49) G. I. Williamson,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283.

50) 서철원, *복음과 율법의 관계*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2), 81-84.

51) 김세훈,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2), 240-241.

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며, 주님께 속한 날이다(계 1:10). 주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날, 사도들이 예배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규범화 된 날, 오늘 우리가 매주일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파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은 후대 교회가 그대로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이 된다. 그 당시 사도와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일에 예배드린 모범은 오늘 우리에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창조와 구원에 관한 언약이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고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신 날, 재림을 소망하고 영원한 안식을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다.

직장사역 연구소 방선기 목사는 성도 263명, 목회자 151명을 대상으로 주일성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교인들의 주일 성수의식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설문조사에서 신자의 62퍼센트가 주일에 출근, 장사, 야유회, 경조사, 주말여행을 갈 수 있다고 응답을 했다.<sup>52)</sup> 이런 까닭에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성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면생활에서 신자들이 일상생활에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일성수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예배참석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주일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성도들이 왜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출석율을 조금은 높일 수 있었다.

## 2. 분석 평가

이상과 같이 양적 성장을 위한 목회 활동은 한 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성실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양적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도 주신다. 따라서 양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 성장 원리 중 제1단계 “하나님께 대한 성실성,”<sup>53)</sup> 즉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를 부

52) 정수익, “주일성수 의식 약화되고 있다,” 국민일보 (2003년 12월 27일), 21.

53)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학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교원용 역 (서울: 보

르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게 된다는 성장 원리를 받아들이게 한다.

물론 이러한 성장주의가 문제점도 있고 때로는 균형을 잃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에 이끌린 자들이 구세주의 복음을 성실하게 전할 때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퍼져가며,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성실성이라는 도날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 원리는 옳은 것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필자가 부임한 이후 성실성에 기초하여 성경공부 소그룹모임 구역활동 등을 통하여 꾸준히 성장하여 오고 있다.

## 제 2 절 질적 성장을 위한 목회 활동

### 1. 질적 성장을 위한 목회 전략

교회성장은 양적으로만 늘어났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이 질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 질적 성장이란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말한다. 교인들이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아울러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철저히 서로를 돌보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등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나타내 보인다.<sup>54)</sup> 질적 성장의 현상은 비활동적이며, 명색뿐인 교인들이 새로운 신앙을 경험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회심 성장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다.<sup>55)</sup>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이러한 질적인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목회 전략을 통해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신앙교육 등을 통한 질적 성숙을 꾀하고 있다.

문출판사, 1974), 21.

54) 나일선, *교회성장 원리* (서울: 크리스천헤럴드사, 1974), 73.

55) Donald A. McGavran and George G. Hunter III, *교회성장학 (Understanding Church Growth)*,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3), 45.

### 가. 목회자의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보라'하는 목회가 통했지만 지금은 그런 스타일의 목회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 '듣는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능력을 통해서 진리를 보고 확증할 수 있도록 '보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영적인 힘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진리가 선포되면 무조건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감성 영성 체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먼저 나타나서 진리를 증명해야 한다.<sup>56)</sup>

목회자 자신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여야 교인들의 영적 성장도 지속될 것이기에 훈련의 생활에 힘써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그리고 '구원론적 신앙'을 지속시켜 주고 있다<sup>57)</sup>고 할 수 있다. 필자도 말씀을 상고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여 강단에 서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필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질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 나. 평신도 성경대학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많은 수가 한국에서 교회에 출석해 보지 않고 이민 와서 외롭고 적적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경우가 많았다. 특별히 이중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가정들이 전혀 신앙의 뿌리 없이 교회에 출입하다가 직분도 맡고 봉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말씀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 질적 성장에 큰 장애가 되는 것 같았다. 이런 까닭에 평신도 성경 대학이란 이름으로 시작해서 제자훈련, 성경통독 등 말씀 교육을 통해 성도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일 년에 한 차례씩 십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실시한 평신도 성경 대학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신앙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초적인 과정부터 교육해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친다. 커리큘럼으로는 신론, 기독교론, 인간론, 성령론, 예배학, 기도학, 성경신학 등 조직신학적인 과목을

56) 오정현, *패스 파인더*, (서울: 두란노, 1999), 28.

57) Harold L. Fickett, *교회성장의 열 가지 원리 (Hope for Your Church)*, 조해수 역 (서울: 예수문서선교회, 1978), 19.

가르쳤다. 평상시 새벽기도 시간에도 성경을 차례로 가르치고 있으며 구역 예배 때 행하는 사역훈련을 통한 그리스도의 일꾼 양성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구역예배를 통하여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교회가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성경적인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렇게 교회가 성경적인 원리 위에 세워질 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다. 소그룹의 활성화

모든 기업이나 조직이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은 모두 관계를 갈망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sup>58)</sup>

필자도 과거처럼 주일 낮 대예배에서 한 번 선포되고 마는 메시지로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듣기만 하던 시대에서 자신을 말하고 나누는 시대로 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뉴호프커뮤니티교회 등은 모든 조직을 소그룹화하였고, 이미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sup>59)</sup> 이처럼 소그룹이 가지는 강점은 바로 변화의 속도와 그 결과가 확실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도 가급적 작은 팀을 만들어 운영하려고 한다. 애틀란타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에는 약 8,000명이 넘는 성인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여 이 소그룹들이 마치 작은 교회처럼 활동한다.<sup>60)</sup> 미래 교회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소그룹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소그룹은 일시적인 유행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드롬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 주신 방법이셨다. 한 영혼에 초점을 둔 사역, 즉 한 사람의 중요성에 사역의 핵심을 둔 필자도 소그룹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소그룹에 대한 목회 철학의 변화가 없이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얼마나 많은 소그룹을 소유했느냐가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소그룹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유기체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58) Andy Stanley and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20.

59) Elmer L. Towns,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10 of Today Most Innovation Churches)*, 김홍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86.

60) Andy Stanley and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14.

고려해야 할 사람은 소그룹 리더, 곧 구역장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구역장들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격려와 책임 의식의 부여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질적 성장에 있어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 소그룹 리더인 구역장을 자원 봉사자가 아닌 사명 중심 사역자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라. 기도를 통한 질적 성장의 노력

건강한 교회 사역의 기초를 형성하는 비결은 기도이다.<sup>61)</sup> 건강한 교회마다 기도가 최우선임을 부인하는 목회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필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신앙이 성장한다. 그러므로 내면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새벽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당회나 부서모임 같은 교회의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새벽 예배 후에 기관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한다. 이러한 회의문화도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목사가 이민사회를 몰라서 이러냐는 등의 여러 반대가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강력한 원칙에 따라 점차 이러한 회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 마. 주일학교 교육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야 교회의 미래가 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보다는 성인들에게 사역의 초점을 맞추고 성인 증가에 힘쓰고 있다.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미래 교회의 사역자들을 만들 수 있고 교회의 잠재적인 질적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

61) Stephen A. Macchi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Becoming A Healthy Church - 10 Characteristics)*,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31.

교회학교의 현장에는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하여 학습자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도자들이 기독교 교육의 원리와 교육 대상의 성장 발달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다.<sup>62)</sup> 주일학교 교육의 사명은 성경말씀이 교훈하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어려서부터 일깨우고 그 의의와 가치를 인식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새로워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다. 그 결과 어려서부터 인식과 행동이 말씀을 통하여 인격에 변화를 불러일으켜 새로운 삶의 모습을 형성하도록 도와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자신의 존재 목적이 성취되도록 돕는 것이다.<sup>63)</sup>

결국 기독교 신앙 교육의 실제 관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구원의 진리, 즉 기독교 종교의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는 신앙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sup>64)</sup>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미래의 교회는 주일학교에 달려있다.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은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 자신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 부부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는 지금 주일학교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주일학교 학생 수가 많지 않지만 유년부, 초등부, youth, 청년부로 주일학교 부서를 나누고 4명의 목사님들을 통하여 각 부서를 담당케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 선생님들로 하여금 분반 공부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시키게 함으로써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의 신앙의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특별히 분기별로 주일학교 교사와 교역자들이 사택에 모여 함께 식사하며 교육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부서별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꾀하고 있다.

62) 조석원, *교회학교 교육계획 핸드북* (서울: 양서각, 1988), 3-4.

63) 정일용, *기독교 신앙교육* (서울: 목양, 1992), 5.

64) 정일용, *기독교 신앙교육*, 6.

#### 바. 부흥 성회 개최

전호진은 “부흥 운동은 한국 교회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거니와 한국 교회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 말씀에 전념, 정열적인 봉사 등은 부흥 운동의 결과”<sup>65)</sup>라고 주장하였다. 이 지역의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매년 봄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교인들의 양적, 질적 성장을 확신한다. 교인들이 다른 강사 목회자에게서 평소에 담임 목회자로부터 접하지 못했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회복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단독으로 부흥회를 개최할 때마다 스프링스 지역의 한인들이 연합으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사랑과 관심도 높이며, 스프링스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힘쓰며 동역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경우 창립 때부터 연 1회 부흥 성회를 개최하였다. 지금까지 실시했던 부흥회는 교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다. 부흥성회를 통한 회개 운동, 정화 운동, 선교 운동 등이 교회 기반을 다지는 계기와 봉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부흥 성회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가져 왔다고 확신한다.

#### 사. 감사 생활의 표현

내적 성장을 경험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sup>66)</sup>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표현은 감사 생활이다. 감사의 표현은 받은 은사의 활용 외에도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헌금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감사 헌금이나 십일조 헌금 외에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헌금을 드린다. 필자는 십일조나 감사 헌금 등의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자신의 내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확신하기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가르치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 성도들의 질적 성장을 가져 오게 됨에 참으로 감사드리는 일이다. 이러한 각종 물질의 감사표현으로 인하여 교회건축에도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

65)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3), 227.

66) C. Peter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212.

나라 교회의 실제적인 질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 아. 베풀고 섬기는 삶의 실천을 격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내적 성장을 이룬 교인에게 나타나는 표현은 새 계명의 실천, 곧 사랑의 실천 생활의 표현이다. 이때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특별히 이민교회 중에서도 이중문화 속에 살다보니 한국음식을 잘 해 먹는 가정이 드물다. 한 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식사하는 것이 한국음식을 먹는 전부인 성도도 있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는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배 후 사랑의 애찬을 아주 풍성하게 나누고 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애찬을 준비해 온다.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정성을 다해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풍성해야겠지만 풍성한 육의 양식을 통한 사랑의 교제 또한 질적 성장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로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한다.

#### 자. 복음 선포를 위한 사역

복음 선포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중문화의 가장 문제점인 비한국인 성도를 위한 설교의 전달을 위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통역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한국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서는 예배 전에 통역자와의 긴밀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으며 늘 은혜스런 예배를 위해 서로 기도하며 토론을 한다. 통역을 통하여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나로 묶는 성도의 교제들이 교회 질적 성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한 복음 선포이다. 이 일은 곧 교회의 사명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경우 구역 조직을 이 사역에 협력케 했다. 각 구역마다 선교지 한 곳을 맡아서 기도하고 후원케 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는 전도에 관심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모아서 전도특공대란 이름으로 지역 한인 마켓을 집중적으로 공략케 했다. 전도특공대라고는 하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주일 내내 할 수 없어서 한인들이 마켓에 가장 많이 찾는 날인 물건이 새롭게 타 지역으로부터 공급되는 목요일과 금요일을 중심으로 하여 한인 마켓을 순회하며 여름에는 음료수로 추운 겨울에는 뜨거운 차를 제공하며 전도에 힘쓰게 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전도부 주관으로 모여 노방전도를 실시했다. 이러한 복음 선포를 위해서 교인들의 전도와 선교의 열을 가속화시켜 결국은 본 교회의 성도들의 복음의 열정으로 인한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선교하는 교회일 때만이 생명력이 있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복음 선포를 위하여 직접 현지에 참여를 못한다 하여도 물질로 도와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고도 있다. 이것이 교회의 질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2. 목회의 핵심으로서의 설교

설교자는 훌륭한 창작자이다. 설교자는 창작자이어야 하며 창작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창작자이시고 설교자는 재창작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며, 설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가지고 설교자가 다시 만들어 내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하더라도 성경 이상의 것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설교는 목회의 핵심사역이다.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을 갖고 사람을 감동케 권면하는 종교적 강화법을 강조하는 것이다.<sup>67)</sup> 참된 말씀 전파의 부흥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데 있다. 설교는 목회자의 주요 임무로써 어떤 소명보다도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다.<sup>68)</sup> 그러므로 설교자에게는 인격과 교양이 중요하지만 먼저는 바른 신학으로

67) 김재술, *목회학* (서울: 세종문화사, 1979), 137.

68) D. Martin Lloyd-Jones, *목사와 설교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11.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신학은 말씀의 논리적 전개요, 조직적 해설이기 때문이다.<sup>69)</sup> 신성중은 신학이란 교회의,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고 말한다.<sup>70)</sup> 설교는 목회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 되고, 설교를 통해서 교육이 되고, 설교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설교를 통해 개인과 사회와 민족과 세계가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여 양떼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끼치는 것이다.<sup>71)</sup> 그러므로 올바른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재료로 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전파해야 한다.

한국컴퓨터 선교회(이하 KCM)에서 설문조사(2002년 5월 20일 595명)에 따르면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가 설교에 대한 은혜 부족(26.4퍼센트), 둘째가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21.2퍼센트), 셋째가 교역자와 갈등(19.2퍼센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교회를 선택한 신자들은 영성 깊은 목회자(33.4퍼센트), 목회자의 설교(31.6퍼센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목회자의 인지도보다는 목회자의 영성 즉 기도생활과 목회자의 인격과 설교를 듣고 보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sup>72)</sup>

필자는 성도들에게 성경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는 설교내용 전체가 성경의 관점에 근접해 있는 가운데 그 특징과 본질이 나타나야 하고, 설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현존, 즉 지금 여기에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 메시지가 현대적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신약과 구약 모두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들에게 먹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확신시켜주고 말씀을 풀어서 적용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명령과 책망과 훈계 중심보다는 은총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민생활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69) 신성중, “바른 신학으로 기반을 갖춘 설교자가 되라,” 이렇게 설교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한국교회성장연구원 편 (서울: 하나, 1994), 12-13.

70) 신성중, “바른 신학으로 기반을 갖춘 설교자가 되라,” 16.

71) 박희천, 나의 설교론 (서울: 개혁주의 신행 협회, 1987), 29.

72) 전재우, “교회성장연구 ‘교인 이동’현황조사,” 국민일보 (2004년 1월 1일), 39.

### 3. 분석 평가

이상과 같은 질적 성장을 위한 목회 활동은 실제로 교회와 교인들의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 즉, 감사 생활의 표현과 사랑의 실천적 표현이 그것이다. 도날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 원리 2단계 곧, 교회 성장이 잃은 자를 단순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우리 안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sup>73)</sup>이라는 원리대로 풀을 먹이고 돌보는 일(folding and feeding)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교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목회 사역에 힘쓰고 있다.

피터 와그너는 “질적 성장이 일어날 때 교인은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철저히 예배하고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보다 더 친밀하게 서로 서로를 돌보며, 보다 더 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된다”<sup>74)</sup>고 했다. 나일선(Narlin L. Nelson)은 “질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기도와 증거의 생활과 순종과 성경 공부의 모습이 나타난다”<sup>75)</sup>고 한다.

위의 주장들에 따르면 필자가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서 질적 성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반 목회 활동은 교회 성장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성도들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더욱 더 효과적인 목회 활동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성도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게 하고 교회의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연구하고 있다.

73) Donald A. McGavran and George G. Hunter III. *교회 성장학*, 23.

74) C. Peter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212.

75) 나일선, *교회성장 원리*, 67-77.

## 제 6 장

###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목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록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기록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자신이다.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이민교회가 그러하듯이 사랑의교회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세우는 쪽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안목으로 인하여 신앙의 본질을 잃어 버린 경우가 많다. 이 장에서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세웠던 목회 전략들과 그 실행 결과들에 대해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 제 1 절 전인적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은 목회자에게 있어 매우 귀중한 사명일 것이다. 이 사명이 귀하다는 것은 성경 진리를 전파하여 교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음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는 것이다.<sup>76)</sup>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

76) 김세운,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제자, 1995), 11.

회는 담임목사인 나를 포함해서 4명의 목회자가 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목양하는데 있어서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본 교회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1. 전인적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진 목회자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며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곧 구원사건인 것이다.<sup>77)</sup> 그러나 현대는 종교다원주의화 현상이 심각하여 목회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지금 교회는 탈교회화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하고, 종교 다원주의가 전도와 선교, 설교에 심각한 방해로 주고 있음을 깨닫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과 구속의 유일성 강조와 주님의 삶과 사역을 연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야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교회에 유행하는 풍조들과 종교적 혼합주의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의 유입과 관용은 교회의 영적 타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sup>78)</sup> 세상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곳에 세속화는 일어난다.<sup>79)</sup>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바른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 가. 올바른 복음 선포와 복음적용을 강조

교회 출석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다. 바르게 선포된 복음은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 전에 계획되어 영원까지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영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의 역사가 일관성 있고 심오하게 드러나야 한다. 또한 성령의 새 창조에 대한

77)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31.

78)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서울: 이레서원, 2000), 17-18.

79)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31.

신앙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본문이지만 교회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성령이 항상 새롭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말씀하심이다.<sup>80)</sup>

그러므로 교회는 첫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중심 메시지이다.<sup>81)</sup>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이미 시작 되었으며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드러났으며 그것은 종말에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이 세상의 고난도 인내해야 한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sup>82)</sup>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사건인 것이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즉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에 필연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 약속을 말씀하는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전 15:3).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를 대속의 제사로 내어주신 사건인 것이다(롬 3:25). 이것은 다니엘 7장의 사람의 아들의 과업이며 궁극적으로 이사야 42-53장의 주의 종은 자신을 언약과 대속의 제사로 바침으로 이 과업을 성취하려 하였다. 예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의 사랑과 부요함에 참여하여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언약과 제사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예수의 죽음은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로서 실제 죄를 용서하고 우리들을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사건이다. 예수의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로서 예수의 죽음을 그의 메시아적 행위의 중심으로 보고 그들의 선포를 그것에 집중한 것이다.<sup>83)</sup> 복음이란 모든 악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의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다.

80)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166-168.

81)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제자, 1995), 49.

82) 김세윤, *예수와 바울*, 195-248.

83)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140-141.

### (1) 복음의 객관적 적용원리에 대해

복음의 객관적 이해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그림 언어가 도움이 된다.

첫째가 제사이다. 이 속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구원에 대한 것이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세우사, 속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만드신 것이다.

둘째는 화해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 결과로 일어난 것이 화해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셋째는 구속이다. 노예를 팔고 살 때,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할 때는 전 주인에게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켰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 즉 몸값이라고 했다(막 10:45). 이 구속의 결과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넷째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다. 자녀들의 특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 것으로 쓰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는 복음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제 측면들을 잘 보여준다.

### (2) 복음을 통한 구원의 개인적 적용에 대해

복음을 통한 구원의 개인적 적용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의인됨이다. 심판관에 의해서 무죄 석방을 받는 것이 의인됨이다.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의인됨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들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에 실패를 했다. 즉 언약이 파기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단 7:13; 사42:6; 49:8; 53장)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독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막 14:36)라고 부르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사도바울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롬 8:15, 갈 4:6)라 불렀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들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자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상속자(롬 8:17)라는 것이다.

셋째는 새로운 피조물됨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 존재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닫아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열린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 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후5:17)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복음을 통한 구원의 개인적 적용에 대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평화를 이루는 삶,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 나. 복음 선포의 대상과 원칙 채택하기

복음을 전파할 때 각 세대의 특징들을 살펴서 전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목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역량에 따라 분명한 대상과 세대를 정해야 한다. 특별히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부모세대와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세대에 맞는 복음 선포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담임목사와 교육목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연구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교육부서의 목회자와 교사가 모여 식사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목회 계획을 수립한다. 특별히 이중문화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1세대 한인 성도들은 한국 문화와 한인교회의 특성을 잘 살리면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만 1.5세의 한

인과 2세 한인 그리고 이중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섞여 예배하고 교육하는 주일 학교 교육은 목회자와 교사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2. 모범적 자세를 회복하는 목회자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의 상처 입은 영혼들 중에는 목회자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교회출석을 하지 않는 이가 상당하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들은 이 지역 목회자가 여러 방면에서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는데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상처입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세상이 바라는 기대와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좁은 길을 택해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왜 좁은 길을 걷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세상의 지도력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도력에 본질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지도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곧 자신감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도력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 중요하다. 또 세상의 지도력은 정치적 상식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도력은 영적 상식이 더 중요하다.

세상적인 지도력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도력의 차이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세상에서 통용되는 아이디어를 통해 인간적인 독립심을 갖는 것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적극적인 것과 온유하고 유순한 것, 자기를 먼저 내세우는 것과 다른 사람을 먼저 내세우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하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등으로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사람들은 삶에서 만난 모든 문제에 대해 바르게 반응함으로써 리더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예비하시지 않는다면 영적인 리더는 될 수 없다. 세속적 리더십은 원하는 사람이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리더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맡기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으나,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 영적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영적 리더십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개인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 가도록 하심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성품은 지혜, 정직, 그리고 도덕적 순결성을 포함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리더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성품이 바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 클수록, 성숙한 성품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요구된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의 생활에 적용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할 본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세상의 지도자들보다 더욱 엄격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나. 소명감을 회복하는 목회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2:15).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사역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정확히 지시하는 핵심적인 지침이 된다. 본 연구자도 이 말씀을 사역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거듭 점검하게 하는 나침반으

로 삼고 있다. 모든 사역자는 잠시 중심을 잃더라도 곧 영적으로 원 위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역자들의 팀워크를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것,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자세가 바로 모든 사역자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자기관리의 차원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적,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의 가장 큰 중점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다. 말씀을 통해 흔들림 없는 건강한 사역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질투심이 남달라 남이 잘되면 특히 더 괴로워한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구가 다른 사람보다 강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성격이나 스타일, 욕구가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자신을 향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할 영역은 크게 네 가지다. 야망과 이성, 물질, 삶의 패턴에 관한 것이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

교회성장연구소 홍영기가 9개 도시 9개 교단의 18세 이상 108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한 결과 한인교회 신자들의 76.5퍼센트가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었다. 22.8퍼센트는 목회자와의 갈등 문제로, 16.7퍼센트는 이사 문제로 교회를 옮겼다. 그러나 교회를 옮긴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와의 갈등문제로 목회자의 인격이 부적절하고 소명감이 약하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sup>84)</sup>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분명한 소명감과 목회 철학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교회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회자도 교인들에게 항상 부정적인 출발, 실천보다는 말이 앞서고, 자꾸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비판하는 습관, 헌신과 정착보다는 항상 떠나려는 마음과 헌신적인 삶이 부족한 것만 지적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목회자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교회행정에는 원칙과 소신으로 목회 윤리를 실천해야 할 필

84) 전재우, “교회성장연구 ‘교인 이동’현황조사,” 39.

요가 있다.

#### 다. 영성을 회복하는 목회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가를 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듯이, 하나님과의 영성 회복 자체는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마르지 않은 샘을 파는 것이다. 마치 이사야의 58장 11절의 “너는 물뎀 동산 같겠고”라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 받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런 영성 운동을 개인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국한하여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성 훈련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동시에 대인 관계적이며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여 세 가지 차원을 포괄하는 전인적인 훈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와 나눔이 포함되고 선교적인 영성으로 발전되어야 비로소 영성 운동이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관계가 파괴된 채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오는 피로움일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쉽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 결국 개인을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결과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중요한 자질들이 많이 요구된다. 남보다 탁월한 지적능력, 큰 비전, 축복된 만남, 역동성 있는 삶의 스타일, 좋은 경영 능력, 매력적인 성격, 큰 은사 등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성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사역자의 마음 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자의 마음 밭이다. 육체를 좇아 경영하지 않을 수 있는 (고후 1:17) 순수한 마음 밭을 소유하는 것이 영적인 고갈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민 교회는 한국 교회와는 달리 두 문화라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세대간의 격차에 있어서도 본국과는 달리 언어와 풍습의 차이로 인해 상당히 심하다. 많은 이민 교회들이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교회 규모가 작을

수록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목회자는 우수한 자질, 즉 좋은 마음 받을 가진 지도자이다.

이제 영성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메시지가 감동적이어도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감동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로 자신을 감동시켜 주는 교회나 사역자가 있다면 젊음을 모두 투자해서 섬기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무엇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바로 영성이다. 영성으로 훈련이 잘 된 사역자는 결코 교인들을 실망시키거나 시대의 조류에서 밀려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샘물을 파는 심정으로, 마치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각오로 영성의 샘에 몰두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것들을 찾아 헤매며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알려 주신 것처럼(요 4:14)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 기갈 상태에 빠진 세상을 위해 깊은 영성의 샘물을 퍼줄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현 시대를 이끌고 나갈 진정한 영적 교회 지도자들은 영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영성을 가지고 신앙의 질을 고양하고 심화시킴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합당성과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도의 무릎을 굽혀야 한다.

효과적인 사역은 뜨거운 영성에서 나온다. 영적인 친밀함은 강한 확신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행동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는 영성은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동행함으로써 신앙의 활력이 넘치고 깊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는 목회자가 본보기가 되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언행이 신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하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넷째는 뜨거운 영성을 공동체의 사역과 선교로 연결시켜야 한다. 영성이 선교에 흘러 넘쳐서 추수를 위한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각오하며, 그것이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sup>85)</sup>

그러므로 목회자는 종교적 순수성 유지를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세속적 요구를 거절할 줄 알고, 교회와 교인들을 잘 섬기는 방법을 부지런히 찾아야 할 것이다.

85) 이요한, *새롭게 본 한국 교회 성장요인 분석*, 55-57.

영성을 회복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생동감이 넘치는 복음의 현장이 될 것이며 적어도 목회자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 제 2 절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위한 목회 전략들

### 1. 치유의 공동체를 위한 목회 전략

하나님과의 만남, 나 자신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sup>86)</sup> 그러나 이민사회의 복잡다단한 생활에서 육신과 마음에 숨겨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많이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교인들 또한 각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숨겨진 상처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영혼들의 치유를 위해 말씀과 기도와 권면으로, 그리고 의술이나 상담, 교육 같은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선물들을 잘 활용하여 치유해야 한다.

#### 가.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거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성경말씀 한절 한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그것에 맞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따라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방법에 근거하여 이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자 한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 즉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구원사역 가운데서 예수께서 특히 치유사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익히 아는 사실이다.<sup>87)</sup>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예수님의 치유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예수께서 처음 보여 주셨던 권능이 마귀를 쫓아내는 치유 행위였음을 보여

86) 정태기, *숨겨진 상처의 치유*, 87.

87) 강승철, *치유되는가정! 살아나는교회!* (서울: 콤파스출판사, 2009), 63.

주고 있다. 마태와 누가 역시 치유가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이며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는 데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마11:4-5, 눅13:22). 즉,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치유 행위는 구원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신가를 알고자 했을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11:4-5)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치유사역이야말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둘째, 그리스도는 기존의 우주법칙을 넘어서 치유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이 알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세계의 능력으로 치유역사를 행하셨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역사일 뿐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치유 동기는 인간의 아픔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 정신, 육체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병든 인간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불어넣어서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기를 원하셨다.

넷째, 그리스도는 죄와 믿음과 치유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아셨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의 치유에서 볼 때 그리스도가 먼저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치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이 먼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을 때 그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제적 사역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 한인 사회가 좁아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남에게 자기의 상처나 과거를 알고 싶지 않은 교인들의 생각 때문에 구체적이고 긴밀한 내적 치유 사역이 좀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상대방이 서로 모르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내적 치유를 한다면 자기의 감정과 상한 심령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에 외부로 참여시키게 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LA 소재 온누리교회에서 유진소 목사님이 주강사로 열리는 내적 치유 세미나에 1회에 2명씩 총 6명을

보냈다. 이 세미나는 내면의 상처와 치유를 통해서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 상처란 무엇인지? 상처의 원인들은 왜 생겨났는지를 통해 상처의 발전 과정을 알게 했다. 또한 권위적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버림받은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의 증상들을 통해 자기를 보게 되었고, 서로 나눔이라는 시간을 통해 각자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다. 삶의 만족을 찾아서, 굶주린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열등감을 갖게 되는 원인과 증상들, 죄책감에서 갖게 되는 원인들과 증상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손상된 자존감, 낮은 자존감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 과정을 통하여 조별로 서로 나누고 치유 받고, 결국 상처를 깨닫게 되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내적치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지속적인 치유과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치유 도서를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도서관에 비치했다. 지속적인 회복과 영적 성숙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도서들을 읽고 공부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며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 나아가도록 했다. 3년 연속 다녀온 결과 이들로부터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남을 이해하고 돕는 분위기로 바뀌며, 내적 치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회복되고, 자존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들 한다. 가슴 속에 억눌리고 싸여 있던 많은 부분이 치유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고자 싶은 마음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의치 못한 분들이 많았던 점이 아쉬웠다.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내적 치유 상담 세미나를 갖게 되었다. 2010년 7월에 한국의 예수전도단의 박현숙 선교사를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제로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졌고, 2011년 11월에 한국의 예수전도단의 홍장빈 선교사를 초청하여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위한 건전한 자존감 정립이란 주제로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졌다. 2012년 5월에 예수전도단의 박현숙 선교사를 한번 더 초청하여 '하나님의사랑'이라는 주제로 상한 감정의 치유와 회복을 갖는 세미나를 3일 동안 개최했다. 2011년과 2012년에 같은 강사인 박현숙 선교사를 모셨는데, 박현숙 선교사의 평가에 의하면, 그 동안 교인들의 모습이 많이 밝아졌으며,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억눌리고 싸여 있던 자아를 발견하고 내적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자는 내용이다. 이런 세미나

를 통하여 많은 교인들이 헌신적이고 자신감을 가졌으며,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교인들이 간증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런 3 년간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들이 많이 성숙하여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내하며 깨끗하게 살아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다.

#### 나. 치유 과정

의술이나 상담, 교육 등에 의한 자연적인 치유와 말씀, 기도, 찬양의 예배에 의한 초자연적인 치유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이거나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므로 치유를 위해서는 둘 다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문제를 명료화시켜야 한다.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것 중 어느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눅18:35-43).

셋째, 용서가 선행되어야 한다.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용서가 이뤄져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와 이웃을 향한 나의 용서가 치유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눅7:47-50).

넷째, 치유가 일어난다. 이 과정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아직 상처 자국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상처 자국으로 인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셨다. 과거의 부정적인 상처들을 넘어서서 사랑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다.

다섯째,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적극적인 삶은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치유과정을 통한 치유목회는 한 성도의 육신적인 질병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인데 이것은 바로 인간 구원, 그 자체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교회본질을 회복하고 치유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2. 회복의 공동체를 위한 목회 전략

### 가.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회복

이민교회의 역사란, 분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끊임없는 분열의 연속이었다. 교단은 교단대로,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끊임없이 분열해 왔다. 심지어는 교단과 상관없이 분열해 왔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사랑의교회 역시 스프링스 한인 감리교회에서 분리되어 창립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부임하기 전 3년 동안 3명의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모두다 순복음교단 소속 목사였다. 그러다 장로교 소속 목사인 필자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처럼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교단은 감리교에서 분리되어 순복음 교단이 되었다가 장로교단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분열의 주된 원인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실 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아무도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으로 밝혀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님께서서는, 주님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구세주로 믿는다는 인간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를 '내교회,' 즉 '주님의 교회'임을 명확히 하셨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명칭이 어떠한 상관없이,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집단일 뿐 결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일 수가 없다.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에 분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실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원칙이 잊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쩌면 이것은 이민 사회에서 한 사람이 귀하다보니 너무 성도의 눈치를 봐야하는 이민교회가 낳은 부작용일 것이다. 이 미국 땅에 세워진 교회치고 어떤 교회가 사람을 주인으로 삼기 위하여 세워졌겠는가? 모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교회 창립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자들은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모두,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쉬운 이민 교회의 특성상 교회는 재정적이고 인간관계 속의 이해 관계에 엮이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특정 인간의 교회로

전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가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 부임 받아와서 보니 몇 명 남지 않은 개척 멤버라는 자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보며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최선의 임무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주인 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최대한 교인들의 역할들을 분담시킴으로써 특정인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 못하게 했다. 당회를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당회가 되자는 취지에서 몇몇 장로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임의로 필요한 때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의견을 묻는 당회로 모인다는 원칙을 세워갔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늘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주님이심을 회복할 수 있었다.

#### 나. 만인제사장 직분의 회복

성경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명령하고 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만민이 구별 없이 제사장임을 성경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 되어 돌아가셨을 때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이 증명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들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종교 개혁자들이 유독 이 만인제사장설을 강조하였던 것은 카톨릭 교회에서는 서품 받은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sup>88)</sup> 사제가 없으면 예배가 성립될 수 없다. 당연한 결과로 사제가 없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비 성경적인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 구약시대로의 회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민이 제사장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직접 예배드릴 수 있

88)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238.

음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만인제사장 사상은 개신교의 기본 정신이 되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부임 초기부터 필자는 예배 시에 목사 가운, 즉 성의를 입지 않았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 때에 스톨(Stole)같은 것을 착용해 본 적도 없다. 강단 위에는 아예 의자를 두지 않았다. 인도자, 기도자, 설교자, 성가대 지휘자는 모두 자기 순서 때에만 강단에 오르고, 순서가 끝나면 강단 아래쪽 교인석에 함께 앉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존재임을 시각적으로 서로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목사가 거룩한 성의를 입고 강단 위에 정좌한다는 것은 확실히 멋진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은연중에 목사와 교인을 구별 짓는 행위일 수가 있다. 목사 홀로 성의를 입고 강단에 앉아 있는 한,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인이 만인제사장일 수는 없다. 그만 홀로 제사장인 것이다. 만인제사장의 회복은 성의를 벗고 강단 아래에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했다. 단지 세례식이나 혼인예배 등 예식을 집행할 때에 한해서는 성의를 입었다. 예식은 의식(ceremony)인 만큼, 그 예식과 관련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은혜로운 봉사를 행하기 위함이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장로가 8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뿐 아니라 집사들까지도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여자집사와 권사는 구역순서대로 수요일예배에 대표기도를 맡게 하였다.

예배순서도 필자가 부임하였을 당시에는 설교순서 후에 헌금 순서가 있어서, 설교시간에 헌금 준비하느라 성도들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예배순서를 설교시간 앞에 헌금순서로 뒤편으로써 더욱더 설교에 집중할 수 있었다. 설교 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한 주간을 살기로 다짐하는, 파송찬송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설교를 각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처럼 만인 제사장의 원리 회복은 현재로서는 특히 예배예전의 사역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목회적 들뜸은 사역에서도 이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다. 그럴 때 예배는 늘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 3.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사역들

이민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외롭다. 분주한 삶과 짝 짜여진 스케줄, 혼잡한 이민 생활 한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낀다. 이 외로운 이민생활은 의미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질병이나 건강악화에 노출될 위험성이 훨씬 크다.<sup>89)</sup>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인간의 능력은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다시 말해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 있을 때 치유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숙지하고 이민 사회에서 고독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전인적인 소그룹이란 성도들을 세포조직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섬기며 기쁨을 나누고 삶의 아픔과 괴로움도 치유하도록 돕는 모임이다.<sup>90)</sup> 이는 성도들끼리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친교하는 모임을 넘어 성도의 삶에 전인적(영육간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소그룹 모임에서 모임의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한 가족이라고 느끼게 되면서 이민생활 속에서의 외로움이 치유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소그룹의 방향은 전도부는 전도목적, 새신자 관리부는 새신자 양육에, 구역들은 구역별로, 주일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목적 등으로 갖게 되니 시간이 지날수록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소그룹 사역은 성경공부만으로 끝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인생 문제들이 허물없이 나누어지고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합심기도가 이루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나누어지는 모임이 되었다.

89) Andy Stanley and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33.

90) 서정문, *당신의 교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 하라* (서울: 도서출판NCD 2006) 71.

## 제 7 장

##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회복을 위한 전략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지역 내에서 성장을 꾀하는 한인교회라면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 교회는 늘 이동이 심한 곳이라 본 교회 교인이라 하더라도 언제 다른 교회로 이동해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는 본 교회 신자나, 방문 신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방문 신자란 불신자의 단계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탄생하기 때문에 중요하다.<sup>91)</sup> 설교, 교육, 음악, 예배를 중요한 사역으로 본다면 새신자 관리 위원들은 조직된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훈련으로 무장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신자를 영접하는 사역은 환영을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매개체 사역이기 때문이다.<sup>92)</sup> 교회는 방문 신자, 기존 신자들에게 기독교적인 환대와 환영을 인격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는 매개체 사역의 현장이다.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교인들에게 교회와 예배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교회의 세속화 극복을 위해서 힘쓰고, 목회자가 강한 소명감과 엄격한 윤리와 영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더불어 한번쯤 찾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91) 이석철, *새신자교육의 구조와 운용*, 새신자 목회 (서울: 그린, 1995), 66.

92) 이석철, *새신자교육의 구조와 운용*, 10.

## 제 1 절 교회 이미지 개선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설립과정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출발 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다른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어서 분쟁 끝에 한쪽 세력이 분립해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필자가 부임해 와서도 한동안 그 이미지 때문에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 특성상 너무 좁은 한인 사회에서 그러한 이미지의 회복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건물 역시 자체건물이 아니다 보니 교회를 처음 방문한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매력어 없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온 성도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최대의 전략으로 삼았다.

교회를 방문한 신자들이 다시 교회에 오고 싶다고 느낄 때는 교회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교회의 첫 인상은 친절하고 평안하고 좋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 1. 목회자의 이미지 관리

한국교회이나 미국이민교회나 평신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실추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먼저 어떻게 하면 평신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이 따라주는 목회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우선 몇 가지 나름대로의 지난 목회 경험과 이 지역 목회자와 교회들의 문제점들을 듣고 평신도들이 원하는 목회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 주려고 시도했다.

#### 가. 구령의 열정

목회자로서 구령에 불타서 한인 마켓을 돌며 전도하는 평신도를 보면 우리 교회 교인이건 타 교회 교인이건 간에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평신도 입장에서조차 마찬가

지일 것이다. 구령에 불타는 목회자의 모습을 볼 때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믿어주고 신뢰한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성도들도 있었다. 왜냐하면 교회성장과 영혼 구원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 비친 목회자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는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부름 받은 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켓을 돌며 노방 전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령의 열정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역을 위해 신자든 불신자든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기 위해서 직접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설교도 성도들이 동의하건 아니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권위에 호소해야 한다. 모든 것이 구령에 불타는 열정으로 감당할 때 성도들도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

#### 나. 헌신의 모범

평신도들의 헌신은 목회자의 헌신도에 달려 있다. 목회자가 열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보다 기도는 더 깊게, 헌금은 더 많이, 금식은 더 자주 해야 한다. 목회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기도이며 평신도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필자는 교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도 반드시 기도한 후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처음에는 유난스럽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습관이 되어 당연 하다고 생각한다.

이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 열심과 성실함을 갖고 일하는 목회자를 보면 존경심이 생기고 신뢰감이 생기게 된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열심을 내는 만큼 열심을 낸다. 필자는 교회에서 친교 후에 청소할 때도 앞에서 청소기 들고 열심히 하고 쓰레기 청소까지도 열심을 내니, 다른 성도들도 함께 열심을 내는 것을 늘 경험 할 수 있었다. 새벽기도도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 일주일 내내 한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열심을 낸다. 크고, 작은 일들을 떠나서 목회자가 앞에서 열심을 보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 준다.

#### 다. 청렴한 이미지

이민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간에 가장 갈등을 일으키고 신뢰감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금전 문제이다.<sup>93)</sup> 답답한 것은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금전에 대해 큰 욕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는 돈 욕심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필자가 이 지역에 와서 교회마다 어려워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교회마다 돈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은 시험에 들어 중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필자는 이 문제를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많지 않은 사례비를 받아도 돈에 관한 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 먹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사례비나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는 결혼식 주례를 서고도 사례비를 돌려보냈으며 장례식 집례를 하고도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경조사가 있을 시에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축의금과 조의금을 드렸다. 심방 시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돈 봉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심방 시에 빈손이 아닌 비록 작더라도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가는 성의를 보임으로써 성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다.

#### 2. 사역의 목표가 뚜렷한 프로그램 만들기

필자는 신자들에게 교회의 긍정적 이미지는 교회가 각 시대마다 단순하면서도 일관된 프로그램과 운동을 강조했을 때라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교회 밖에서 신자들에게 주일성수, 부흥운동, 한민족 복음화운동, 사회선교, 성서적인 정신으로 문화 창조 같은 사역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교회적으로는 소속의식과 성경연구, 복음전도를 지속적으로 부르짖었다.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는 홈리스사역 등 시대를 밝히는 역할을 했으며, 사회와 제도에 대한 신자들의 불평을 말씀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다.

93)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10), 158.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도 개 교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교회 사역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교회의 실정에 맞고, 교인들의 화목한 교제와 주일성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커다란 교회 목표를 뚜렷이 정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고, 신자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민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만 실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느 프로그램으로 목회가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각종 성공 세미나, 프로그램 도입에 신경을 곤두세워 여과 없이 본받아 실시함으로 자신이 속한 교회의 상황과 현실에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신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면역성만 높여 주었다.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신앙과 윤리를 접목시키는 교육적 차원의 단순한 목회 프로그램인 평신도 성경대학을 개설하여 교인들이 이민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그리스도인의 바른 사회생활이라는 과목을 말씀적으로 정리하여 이민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쳤다.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는 인식이 교인들에게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며, 따분한 예배를 탈피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기존의 예배순서를 바꾸어서 예배를 통하여 감격을 맛보게 하고 새로운 느낌이 없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연중행사 같은 행사들을 줄였다.

### 가. 감동을 끼치는 사역의 장

참여 사역이란 전교인이 하나의 비전 아래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새신자들의 정착이다. 새신자가 교회 안에 빨리 정착하여 사역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동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목회 사역에 대한 감각은 두 가지 축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잘 동화되어 정착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영적 성숙을 지향케 하는 제자 삼는 자로서의 재생산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 온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려면 반드시 그들이 교회에 동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교회 문화에 흡수 동화되거나 새로운 위탁의 기회를 발견하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 없이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기란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다. 물론 이러한 동화 과정을 유발시키는 새로운 기회나 터닝 포인트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참여하던 기존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는 반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을 동시에 잘 살펴야 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문화와 사역의 맥락에 따라 고유의 동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좁은 지역에 많지 않은 교회 수이지만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신학적인 색깔 뿐 아니라 목회자의 목회철학에 따라 서로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도 나름대로의 교단배경과 독특한 문화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새로운 신자가 동화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나 교회의 신학적인 성향, 그 시대의 세태가 반영된 문화에 대한 감각, 교회의 조직 구조 등에 따라 동화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변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동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감동을 주는 사역이다.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더 나아가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하려면, 교회가 그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사역의 장이 되도록 고민해야 한다. 감동을 주기 위해 정말 필요한 기초 작업은 성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리서치 작업이요, 그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 보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교회에 동화 되어가고 교회의 비전을 알아가고 함께 사역의 장으로 나가도록 감동을 주어야 한다.

#### 나. 새신자 동화 과정

새로운 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교인들과 동화되고 헌신하는 교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김연택에 의하면 지역 사람들은 “저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 “이 교회”라고 말하고, 등록된 교회는 “우리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동화 과정에 있어서 교인으로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sup>94)</sup>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새신자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동화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가 있다.

첫째, 인식의 단계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그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교회 위치나 건물의 겉모양, 지역 사회 기여도, 구제, 봉사, 광고, 출판물 또는 그 교회 성도들이 풍기는 이미지 등이 이 인식의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필자가 처음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 부임하면서 인식, 즉 이미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렸다. 교회의 이름과 위치,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나 이미지, 그리고 담임목사의 이미지 등이 옳고 그르거나,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은혜롭게 조화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깨어 있고자 애썼던 것이 초창기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둘째, 매력을 느끼는 단계다. 인식만 하고 있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해 매력을 느껴 계속 나오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이 단계는 교회에 속한 멤버들의 소개와 접촉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멤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줌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매력이 개인적으로 와 닿아야 한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특별히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군인 지역이기 때문에 새신자들 중에는 이중문화인 가정의 군인가족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교회에 처음 출석하면서 이중문화인 군인 가족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사랑의 교회에는 군목과 장교 직책 있는 군인들이 이들 가정의 신앙을 상담해주고 있다. 또한 일상사에서는 이 지역 한인회를 오랫동안 이끌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이 지역 정보나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새신자들의 매력을 끄는 데 충분했다.

셋째, 매력을 느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할 때의 단계다. 이때의 동화 과정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첫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와 긍정적인 경험 등이 필요하다. 그 어떤 것도 허상이 되면 안 된다. 인식 단계와 매력을 느끼는 단계에서 교회가 잘 소개되고 나름대로 이미지가 생겼는데, 막상 와 보니 그 내용이 이미지와 다르다면 그때부터 그 이전 단계에서 느낀 모든 것이 허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 정착할 수 없게

94)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401.

된다. 처음 교회에 출석할 때 새신자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이 교회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둘째는 ‘이 교회에 내가 그동안 기대하고 원하던 것이 있는가?’이다.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 처음 새신자가 나왔을 때 잘 동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비슷한 연령, 비슷한 기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접목시켜 주는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서는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한다.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꿈임없이 갱신되는 교회’라는 비전이다. 이와 함께 교회에 와서 불타는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며, 자신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남의 신앙도 함께 성숙시키는 것을 주지시키며 비전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비전을 발견하고, 동역자들을 찾아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교회 안에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자신이 교회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스스로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멤버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사랑의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든지 연령별 친교 모임 등에서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소속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의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진다. 대체로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정착 초기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기대감을 무시하지 말고 잘 배려해야 한다. 이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돕고, 교회가 전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새신자들이 최초부터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을 적용한다. 새신자가 누구와 어디서 어떤 관계를 맺고 왜, 어떤 도움을 받아 이 단계를 지혜롭게 거쳐 나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숙지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새신자가 관심을 갖는 부서장이나 구역장이나 새신자가 소속될 전도회의 임원들에게도 교회가 앞장서 새신자들의 기대치에 부응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섯째, 조정 단계가 있다. 교회에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다시 바로잡

아 가는 과정이다.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일련의 교회 적응 과정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와 교회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공급하는 것을 서로 연관시켜 파악하게 된다. 새신자는 이 단계를 지나며 더 발전하는데, 자연스럽게 교회로부터 받기만 하려는 태도에서 점점 베푸는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 교회 사역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게 되고, 교회가 가진 꿈과 비전에 좀 더 성숙한 시간을 갖고 동화되어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 발전해 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다.

#### 다. 새신자의 소외감을 해결하라.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를 찾아온 새신자들 가운데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는 단계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동화 과정에서 이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살펴 본 바로는 가장 큰 이유로 소외감을 들 수 있다. 새신자들 가운데 의외로 이민 교회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들은 말 못할 어려움을 느끼며 고민하다가, 결국 교회 출석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옮긴다. 개인적인 필요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무력해지면 더욱 더 심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소외감을 극복하지 못해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건강한 동화 과정에 실패하게 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가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서로에 대한 무관심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새신자가 교회에 처음 나와 매력을 느끼는 단계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다. 적어도 새신자에게 분위기가 비슷한 구역이나 소그룹의 지체를 붙여 주어 교회에 적응하기까지의 어색함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 조력의 손길을 공급받도록 했다. 더군다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심과 상담, 케어를 할 수 있는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를 붙여주었다. 그래서 결코 혼자 아니며, 교회를 통해 지속적인 사랑과 도움을 받고 있음을 마음에 느끼도록 해주었다. 한 사람을 깊이 박힌 못과 같이 교회에 잘 정착시키고, 그가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을 깨닫게 하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하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전 4:9~12). 이처럼 새신자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교회가 굳어지는 일이 없어야 교회 전반에 역동성이 유지된다. 성장을 목적으로 새신자들을 배려하려는 자세보다는, 전체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잣대로서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끊임없이 새신자의 눈으로 바라보며 반성하고 수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려면 섬길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는 두 개의 큰 영역으로 섬김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하나는 제자훈련을 통해 섬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역훈련을 거쳐서 여러 가지 사역(예를 들면 전파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찬양하는 사역, 관리하는 사역등) 부문에서 은사에 따라 실질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주어진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적당히 나눠먹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만약 말로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봉사하고 훈련 받을 기회가 있다”고 해놓고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다. 이럴 경우 새신자들이 교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차츰 빠져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필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 사역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임무, 새로운 소명, 새로운 그룹의 교제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창의적인 고민을 거듭했다. 사역의 부국강병은 이러한 긴장감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새신자들을 앞문으로 받고는 뒷문을 넓게 열어 두어 열매를 맺는 때까지 건강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 이 지역 교회들 중에는 새신자가 오면 6개월간 아무 사역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지만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오면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새신자의 은사에 따라 사역 배치를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심력 있는 프로그램과 사역 구조가 새신자들의 동화 과정을 돕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 새신자 관리부는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기도하면서 그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으려 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가 섬기는 직분에서 가장 적합한 동화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균형 잡힌 새신자 동화 과정을 통해 교회가 생명력 있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었다.

#### 라. 강점을 활용하는 목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잘 동화되어 정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기존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영적 성장을 지향해, 제자 삼는 자로서의 재생산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은 그들이 가진 강점에 있다는 전제를 해야 할 것이다. 강점은 재능과 지식과 기술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sup>95)</sup> 재능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사고, 감정, 행동이다. 지식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진리와 교훈으로 구성되고, 기술은 활동의 단계이다.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2-3달 동안 하나의 활동을 시작하여 얼마나 빨리 그것을 습득했는지, 얼마나 빨리 학습의 단계를 뛰어 넘었는지 생각해 보아 만족스런 결과가 나온다면 발견한 재능은 강점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 그러나 불만족의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일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강점을 활용하는 목회자는 전략을 세워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자이며, 강한 소명감, 인격, 재능을 겸비하고 동기 부여를 하여 성도들을 잘 결집하게 하고 비전에 동참하게 한다.<sup>96)</sup> 필자도 각 부서에서 효과적인 교회의 조직을 만들어 은사 발굴, 성도의 교제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이룩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역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전략적인 계획아래 복음전도를 실

95) Marcus Buckingham and Donald O. Clifton,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 (Now, Discover Your Strengths)*, 박정숙 역(서울: 청림, 2002), 13-46.

96) George Barna, *The Second Coming of the Church* (Nashville, TN: Wood Pub., 1998), 106.

시하며, 삶의 모든 방면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지역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정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사역을 통해 이름다운 교회되기를 소망한다.

### 3. 부담감이 들지 않는 친절한 이미지 심기

교회를 찾는 사람뿐 아니라 대 사회적으로도 좋은 이미지는 방문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10분 이내에 느끼고 판단한다.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그 교회에 다시 올 것인가를 판단하므로 방문자들에게 첫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sup>97)</sup> 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에게도 교회의 분위기는 중요하다. 필자는 신자들이 예배드릴 때 의미 있는 체험을 경험케 하고, 교회의 목표와 계획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효율성을 높여 줌으로 신자들에게 부담감을 덜어 주고, 신자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새롭게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지쳐 있는 신자들에게 안락함과 평안함을 주고 서로 사랑의 필요를 느끼도록 만들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부담감 없이 스스로 예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여러 신앙 훈련을 시킬 것을 생각했다. 필자는 교회에 가서 느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애를 썼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 현금 따라 사람을 대접하는 교회, 마음 터놓고 속 깊은 이야기 할 상대가 없고 오히려 부담감을 많이 주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사실 이민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자신들에게 심한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 숫자가 많고, 종교인구가 많아도 헌신된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회봉사가 교인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신자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속적으로 훈련과 동기부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요구하고 시키는 경우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목격했다. 목회자나, 리더들이 간청을 하면 거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일을 강압적으로 시켜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

97) Rick Warren, *새들백교회이야기*, 287.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지역과 사회와 신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교회에서 교민들을 위한 영사업무를 한인회와 협력하여 실시했고 노인회와 협력해서 연로하신 분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한인 변호사를 초청하여 이민 법률 상담을 도왔으며 3.1절 기념행사나 8.15 광복절 행사에 교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한인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교회가 어버이날에는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음식과 선물을 드리고 6.25전쟁 기념일이 되면 참전용사(부부동반)들을 초대해서 기념식을 베풀어 드리면서 이 지역 한인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형성했다. 언제부턴가 이 지역 교민들 사이에서 한인교회들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으로 시달려 왔다. 실제적으로 물질에만 집착하고, 개 교회의 성장에만 힘을 쏟는 개 교회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체제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먼저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가 앞장서려고 한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인생의 나이테에 좋은 것을 기록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sup>98)</sup> 말과 같이 필자는 생각과 감정이 신앙의 나이테 속에 기록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는 성도들뿐 아니라 지역 교민들의 심층부에 박혀있는 신앙의 나이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 4. 교제할 시간과 장소 제공하기

교회마다 따뜻함이 있는 친교와 친절한 사랑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 교회의 사랑표현은 교회의 능력과 성장 잠재력 간에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다.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석과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방법 지향적이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삶을 교리와 도덕의 수치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주체하는 공식적인 일들 이외에 밖에서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교회가 칭찬하는데 얼마나 너그러운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개인 문제에 대해 목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교회 안에 웃음이 얼마나 있는가? 지난 두어 달 동안 식사나 차 대접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몇 번이나 초대했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

98) David A. Seamands, *상한 감정의 치유*, 18-19.

은 그 교회의 사랑의 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sup>99)</sup> 구역, 셀, 목장, 가정 같은 소그룹이나 성경공부 모임 등에서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강조함으로써 신자들이 서로 친교, 교제의 폭을 넓혀 가게 해야 한다. 교회가 진정한 통합 사역의 장, 생활 속의 현장사역, 인격적 교제의 터전, 평신도 리더의 종합 양성소 역할을 해야 한다.<sup>100)</sup> 필자의 목회경험에 비추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에 출석율이 낮은 성도들은 교회를 이방인처럼 다니고 교제, 대화, 교회생활에 부정적이고 교회가 형식적인 모임의 장소, 이기적인 모임의 장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사실 이민 교회 출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친교라는 두 축이다. 교제가 활발하고, 교제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 대체로 만족한 교회생활을 하고, 반면에 교제가 없고, 도움을 못 받고 친밀한 사람을 사귀지 못하면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필자는 이러한 사안에 착안해서 교인들에게 친밀한 친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99)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36-37.

100) 임석중,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 (서울: 두란노, 2003), 21-27.

## 제 8 장

### 결 론

지금까지 이중문화 속에서의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 전략에 대해서 논했다. 특별히 필자는 이중문화 속에서의 교회 성장의 원리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았다. 교회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다양한 교회성장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면서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민교회에 나타난 교회성장의 전략들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미국 이민 1세기를 지나면서 지금까지의 목회 방법보다는 다른 시대적인 새로운 목회전략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중문화 속에서의 목회 프로그램의 개발과 목회 전략을 통하여 이민자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배의 감격을 맛보는 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아겠다.

#### 제 1 절 연구의 요약

필자는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적 의미의 이중문화속의 교회 성장의 핵심 원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상적인 교회는 건강한 유기체가 되면 성장한다. 이중 문화속의 이민 교회가 겪는 교회 성장주의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를 통한 바람직한 성장을 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상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도적 본질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알고, 건강한 교회를 위한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는 교회, 교회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상처난 감정과 자존감이 낮은 자를 위한 치유목회를 병행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지역 한인 이민 사회에 긍정적 영

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특성과 목회적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선 이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피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사랑의교회의 역사적 현황들을 점검해 봤을 때 이중 문화 속의 한인 이민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한 교회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므로 예배의 감격을 맛볼 수 있었으며, 성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주지시킴으로써 교회의 세속화를 극복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준비된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 계획을 통해서 교회의 은혜와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었다. 성장을 위한 목회 전략으로 먼저 양적 성장을 위한 목회활동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성”에 근거하며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므로 양적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다. 질적 성장을 위한 목회 활동으로 먼저는 목회자의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과 평신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평신도 성경 대학을 통해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기초적인 과정을 교육하고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하여 작은 그룹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예배와 기도를 강화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질적 성장을 위한 제반 목회 활동을 통하여 성도들의 내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 출석과 성도의 교제를 교회 성장 전략으로 세우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함으로써 출석률을 높이고 장년과 더불어 주일학교도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교육열이 남다른 한인들의 신앙을 충족시켜 주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한국음식을 맛보는 국제 결혼한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있는 친교에 신경을 써서 교제할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었다. 전인적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기 위해 목회자부터 영적 지도력과 소명감과 영성을 회복하고, 상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권면, 그리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긍정적 영향력 회복을 위한 전략을 세워서 좁은 지역사회속의 한인 교회들이 많은 교민들 사이에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부담감이 없

는 친절한 인상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중문화 속의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자부터 모범적인 자세를 회복하고 세속적인 모습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영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을 강화했다. 목회자가 혼신의 정열을 쏟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세와 삶에서의 청렴함을 보여 줌으로써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했다. 목회자의 헌신의 모범이 성도의 삶에 적용되어 성도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한인 사회를 변화시켜서 믿지 않는 초 신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적용 가능성

필자는 이중문화 속에서의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다. 이민 교회 중에서도 이중 문화라는 특별한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먼저는 그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서 자존감이 낮은 자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목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균형적인 성장을 꾀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좋은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을 회복하는 데 앞장 섰다. 그로 인해 불신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여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동화되어 나가도록 했다.

목회 전략으로는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서 말보다는 삶에서 모범을 보이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세워서 그들과 함께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감동적이었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서로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함께 나누며, 공신력을 회복하고, 목회자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을 잘 적용하게 했다.

생동감 있는 예배를 계획하고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설교를 목회사역의 핵심으로 생각해 설교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고 또한 은혜를 받게 해서 교회는 출석율을 높일 수 있었다.

필자는 오늘도 이중문화 속에 있는 한인들을 위하여 먼저 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존감이 낮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면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삶이 치유되기 위하여 늘 교회 생활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 이민생활에 늘 복되고 교회 생활이 은혜스러워져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다.

부 록

AGAPE KOREAN CHURCH NEWSLETTER

MUSTARD SEED

2008

# 겨자씨

## 창간호

CONTENTS

출판에 붙여: 담임목사 홍성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 이한숙  
 입속의 지혜  
 겨자씨 창간호에 붙임:  
 하은헌, 박길호, 박영민, 이선자  
 미국생활 열달을 돌아보며: 이광섭  
 창립 6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사진화보  
 My Vision for the Youths :  
 Youth Pastor Steven Parker  
 편집 후기 및 초대어 말씀

2008 사역목표  
 비전 있는 교회  
 꿈이 있는 성도

# 사랑의교회

2030 JETWING DR. COLORADO SPRINGS, CO 80916 마주한인예수교장로회

## 참고 문헌

### 1. 국내 서적

- 강승철. *치유되는 가정! 살아나는 교회!* 서울: 콤파출판사, 2009.
- 김세운.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제자, 1995.
- 김세운.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2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김재술. *목회학*. 서울: 세종문화사, 1979
- 나일선. *교회성장 원리*. 서울: 크리스천헤럴드사, 1974.
- 리재학. *DTP 교리강해연구*. 서울: 선린출판사, 1991.
- 박희천. *나의 설교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7.
- 서정문. *당신의 교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 하라*. 서울: 도서출판NCD, 2006.
- 서철원. *복음과 율법의 관계*.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2.
- 신성중. “바른 신학으로 기반을 갖춘 설교자가 되라.” *이렇게 설교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한국교회성장연구원 편. 서울: 하나, 1995.
- \_\_\_\_\_.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4.
- 양명득. *다문화사회 다문화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 오정현. *패스 파인더*. 서울: 두란노, 1999.
- 육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 오상철, “2011-2012년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 2012년 5월14일자 인용.  
Online: <http://www.newspower.co.kr>.
- 이석철. *새신자교육의 구조와 운용, 새신자 목회*. 서울: 그린, 1995.
-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 이어령, 이재철. *지성과 영성의 만남*. 서울: 홍성사, 2012.
-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서울: 이레서원, 2000.
-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3.

- 이중표. *교회발전을 위한 교회 개발*. 서울: 콤파출판사, 1996.
- \_\_\_\_\_. *교회발전을 위한 예배 개발*. 서울: 콤파출판사, 1998.
- \_\_\_\_\_.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콤파출판사, 2005.
- 임석중.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 서울: 두란노, 2003.
- 정수익. “주일성수 의식 약화되고 있다.” *국민일보* (2003년 12월 27일): 21.
- 정일용. *기독교 신앙교육*. 서울: 목양, 1992.
- \_\_\_\_\_.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솔로몬, 1993.
- 정태기. *숨겨진 상처의 치유*. 서울: 규장, 2002.
- 전재우. “교회성장연구 ‘교인 이동’현황조사.” *국민일보* (2004년 1월 1일): 39.
- 조석원. *교회학교 교육계획 핸드북*. 서울: 양서각, 1988.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10.
- \_\_\_\_\_.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출판사, 2008.
-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록. 콜로라도 스프링스: 주간 포커스, 2003.
- 행정안전부. 2009년 통계. 2009.7.
- 사랑의교회 홈페이지(<http://www.sarang.org/default.asp>).

## 2. 번역 서적

- Barna, George.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 (The Habits of Highly Effective Churches)*.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1.
- Buckingham, Marcus, and Donald O. Clifton.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 (Now, Discover Your Strengths)*. 박정숙 역. 서울: 청림, 2002.
- Fickett, Harold L. *교회성장의 열 가지 원리 (Hope for Your Church)*. 조해수 역. 서울: 예수문서선교회, 1978.
- Getz, Gene. *현대교회 성장학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 Kim, Seyoon. *바울 복음의 기원 (The Origin of Paul's Gospel)*. 홍성희 역. 서울: 엠마오, 1994.
- Lloyd-Jones, D. Martin. *목사와 설교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서울:

-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 Logan, Robert E., and Tomas T. Clegg. *자연적 교회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 서울: NCD, 2002.
- Macchia, Stephen 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Becoming A Healthy Church - 10 Characteristics)*.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 McGavran, Donald A. *교회 성장학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고원용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74.
- McGavran, Donald A., and George G. Hunter III. *교회 성장학 (Understanding Church Growth)*.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Neighbour, Ralph W. *셀교회 지침서 (Where Do We Go from Here)*.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5.
- Pinnel, David. *셀 교회 평신도 (A Simple Guide to Active Cell Life)*.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정진우, 박동건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 \_\_\_\_\_.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 지침서 (Implementation Guide to Natural Church Development)*. 이준영, 오태균 역. 서울: NCD, 2000.
- Seamands, David A. *상한 감정의 치유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송현복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5.
- Simson, Wolfgang.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개척론 (House Church: Saturation Church-Planting)*.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Stanley, Andy, and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Creating Community)*. 이중순 역. 서울: 디모데, 2007.
- Towns, Elmer L.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10 of Today Most Innovation Churches)*. 김흥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Wagner, C. Pet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 Warren, Rick. *새들백교회이야기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다모테, 1996.

Williamson, G. I.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강해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나용화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 3. 외국 서적

Barna, George. *The Second Coming of the Church*. Nashville, TN: Word Pub., 1998.

Murren, Doug. *The Baby Boomerang*. Ventura, CA: Regal Books, 1990.

Reiner, Thom S. *The Book of Church Growth*.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93.

Sine, Tom. *Taking Discipleship Seriously: A Radical Biblical Approach*.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85.

Vita of  
Sung Woo Hong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Agape Korean Church, Colorado (K.A.P.C)  
Vice President of Colorado Springs Church Association  
Secretary of K.A.P.C. Rocky Mountain Branch

Personal Data:

Birthdate: April 1, 1960  
Marital Status: Married to Soon Hwa Hong with 3 children  
Home Address: Colorado Springs, Colorado  
Denomination: K.A.P.C.  
Ordained: October 14, 1997

Education:

M. Div (eq.).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ersonal Experience:

Senior Pastor Agape Korean Church of Colorado (2005- )  
Assistant Pastor Dong-myung Church (1999-2003)  
Bong-shin Church (1994-1998)  
Interim Pastor Eun-kwang Church (1993)